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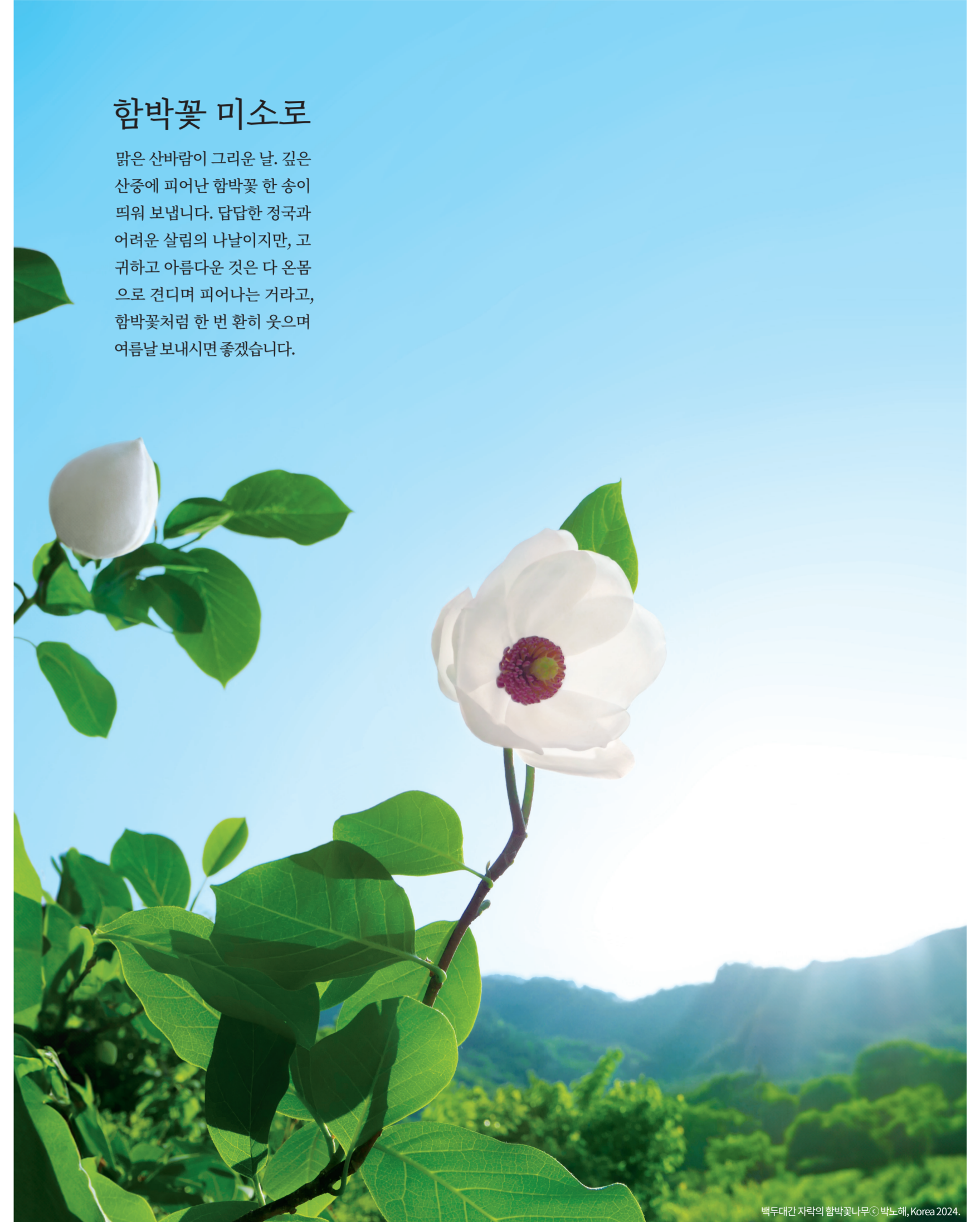
# 나누는 사람들

## 2024년 여름호 차례

- 1 여는글 | 함박꽃 미소로
- 2-3 이스라엘의 ‘라파 학살’ 규탄 성명, 전 세계 대학가의 반전시위
- 4-5 “독재 시절 같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특별인터뷰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윤석열과 검찰개혁』 공저자
- 6-7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 민의를 실현하는 정치를
- 8-10 주목해야 할 글로벌 뉴스
- 11 팔레스타인 난민촌 <자이투나 나눔문화학교> 소식
- 12-13 천 년의 사랑, 그대 안에 올리브나무를  
박노해 사진전 <올리브나무 아래> 순례객 후기
- 14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  
나눔문화 추천영화 26. 영화 <네트워크>
- 15 DAWN OF LABOR  
『노동의 새벽』 40주년 영문판 발간, 번역가 인터뷰
- 16 우리 농업의 현실, 농부 회원님들의 이야기
- 17 “도시에서 농부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14년 회원 인터뷰 |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  
김현정 법인사업국장, 김선영 공동체지원팀장
- 18-19 제주도 나눔문화 회원님 만남
- 20-21 회원가입, 회비증액, 특별후원 회원님 고맙습니다
- 22 “가장 좋은 절세는 ‘후원’이죠”  
나눔문화 신입 감사 인터뷰 | 이미경 광고세무법인 논현지점 대표
- 23 2024년 1-3월 살림보고

## 함박꽃 미소로

맑은 산바람이 그리운 날. 깊은 산중에 피어난 함박꽃 한 송이 띄워 보냅니다. 답답한 정국과 어려운 살림의 나날이지만,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다 온몸으로 견디며 피어나는 거라고, 함박꽃처럼 한 번 환히 웃으며 여름날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백두대간 자락의 함박꽃나무 © 박노해, Korea 2024.

2024년 여름호  
최근 소식은 [nanum.com](http://nanum.com)

전 세계 대학가 반전시위  
이스라엘의 라파 공습 규탄 2-3쪽

“독재 같은 언론 탄압에도”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인터뷰 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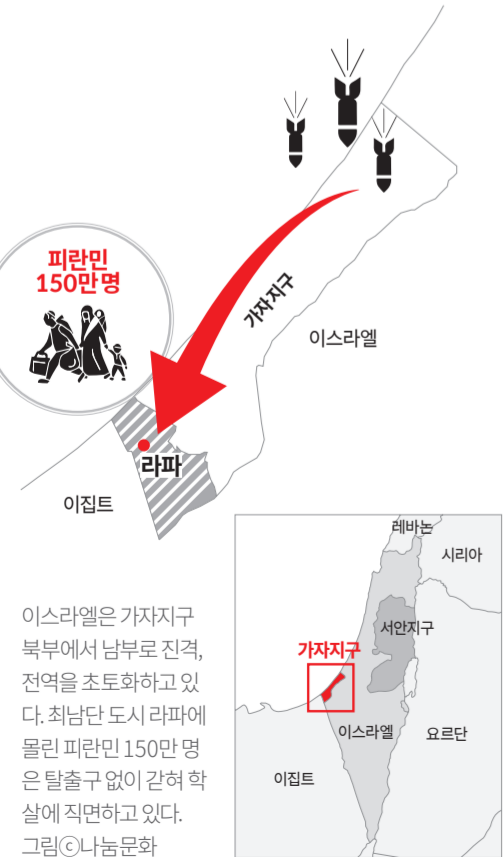
주목해야 할 글로벌 뉴스  
물가조작, AI 살인무기까지 8-10쪽

천 년의 사랑 <올리브나무 아래>  
박노해 사진전 순례객 이야기 12-13쪽



# ‘최후의 피란처’ 라파 Rafah 학살을 멈춰라

지난 10월부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폭격해온 이스라엘이 150만 피란민의 ‘최후의 피란처’ 라파에도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대량 학살에 맞선 세계 시민들의 저항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매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집회·행진이 열리고 있습니다. 매주 함께하고 있는 나눔문화의 성명을 전하며, 미국을 시작으로 전세계 대학가로 번진 청년들의 평화시위 소식도 함께 전합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북부에서 남부로 진격, 전역을 초토화하고 있다. 최남단 도시 라파에 몰린 피란민 150만 명은 탈출구 없이 갇혀 학살에 직면하고 있다. 그림 © 나눔문화

지난 5월 7일, 이스라엘이 기어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후의 피란처’인 최남단 도시 라파에 지상군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공격 중단 긴급명령을 내린지 이틀 만인 5월 26 일에는 ‘대피 지정 구역’의 난민촌을 불태워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6월 현재도 중부 지역까지 연일 폭격, 이스라엘인 인질 4명을 구출할 때는 팔레스타인인 최소 274명이 죽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누적 사망자는 3만 7천 명이 넘었습니다.

## 진짜 목표는 민족 전멸과 자원 독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6월 10일 채택한 휴전 결의안에는 영구 휴전, 완전 철수, 인질과 수감자 교환, 피란민의 거주지 귀환, 가자지구의 인구·영토적 변경 시도 거부, 인도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하마스 궤멸’을 고집하며 “전투는 올해 내내 지속될 것”이라 밝혔던 이스라엘이 결의안을 이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우리는 끈질기게 전쟁의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목표는 팔레스타인 ‘민족 전멸’과 ‘영토 점령’을 통해 ‘석유 위에 떠 있는 땅’ 가자지구의 ‘자원 독점’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이란·레바논·시리아 등 중동 전역에도 전선을 확대해, 이슬람 저항세력을 무력화하고 에너지 수송로와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팔레스타인의 피와 눈물이 제물로 바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 미국은 중재국이 아닌 전쟁 공범국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무기 공급 국가입니다. 더 정확히는,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군산복합체가 미국 정계의 최대 로비 세력인 유대계 유력자들이 이스라엘의 지원자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라파 전면전 당행 시 무기 공급을 끊

겠다”고 말했지만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 규모의 이스라엘 지원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산 폭탄으로 라파의 난민촌을 불태운 뒤 “비극적 실수”라고 둘러댔을 때, 미국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두둔했습니다. 미국의 비호 아래 이스라엘은 전쟁범죄를 일으켜도 국제법의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사라진다면, 다음으로 저들의 탐욕이 가하는 폭력의 희생자는 어디가 될까요? 팔레스타인 민족의 생존 문제는 세계시민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 깨어나는 팔레스타인 평화의 연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지우려 할수록 해방과 자유의 꿈은 더욱 강렬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가자지구 ‘희생자’를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오늘도 올리브나무를 심으며 그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타국에 추방된 난민들도 아이들에게 빼앗긴 고향땅에 돌아가는 꿈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팔레스타인은 ‘살아있다는 것은 저항하는 것’이라고, 잠든 세상을 깨우고 우리 가슴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에 미국에서부터 전 세계 청년들은 수십 년 만에 최대의 반전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 내가 기억하고 증언하고 행동하라

저들은 압도적인 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살을 기억하고 증언하고 저항하는 단 한 사람이 살아있다면 저들은 패배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인류 양심의 전위로 자라나는 청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이스라엘의 학살과 전쟁범죄에 끝까지 저항합니다.

## 유럽 “요르단 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은 해방되리라!”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시작된 대학생 반전시위는 4월 말부터 전 유럽으로 확산됐다. 이스라엘에게 미국 다음으로 최대 무기 공급국인 독일은 “요르단 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은 해방되리라! (From the River to the Sea, Palestine will be free!)”라는 국제 구호를 금지했는데, 베를린 훔볼트 대학 등에서 수백여 명의 학생들이 해당 구호를 외치며 연좌 농성을 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있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대학에서는 100여 명의 학생들이 경찰의 곤봉에 폭력 진압을 당했는데, 시민들의 대규모 항의 행진이 벌어졌다. 한때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금지됐던 프랑스에서도 시앙스

포 정치대학 학생들의 건물 점거 농성에 이어 소르본 대학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그리스에서는 아테네 대학 등에서 밤샘 시위가 벌어졌는데, “그리스는 학살 가담을 거부하라” 펼침막을 걸어 침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스페인 전역의 대학생들은 군수산업의 금고 역할을 하는 산탄데르 은행을 규탄했다. 이 밖에 영국·아일랜드·스위스·덴마크·벨기에·호주 등에서 대학생들의 반전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유럽의 대학생들도 미국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교 측을 향해 이스라엘에 무기를 제공하는 방산업체와 연구 협력을 중단할 것과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끊을 것을 요구했다.

## 아랍 “침묵은 곧 학살 가담이다”

서구 제국주의 식민지배, 미국·이스라엘의 자원 전쟁이라는 아픈 역사를 팔레스타인과 공유하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이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규탄’과 ‘친미·친이스라엘 정부 규탄’ 시위가 개최되며, 요르단에서만 지난해 10월 이후 최소 1,500여 명이 체포됐다. 레바논·쿠웨이트·이집트·튀니지 등은 대학생들의 반전시위가 벌어졌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레바논의 대학생은 “미국 대학생들도 나서는데 부끄럽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0년 중동 민주화 운동 ‘아랍의 봄’의 진원지였던 튀니지의 대학생들은 일주일간 수업 중단을 선언하고 전국 각지를 행진했다.

## 남미·아시아 “국경을 넘어 연대를”

“억압받는 이들과의 연대는 세계 해방을 위한 것이다.” 미국과 국경을 맞댄 멕시코의 대학생들은 이같이 선언했다. 이스라엘산 무기 최대 수입국 인도의 대학생들도 탄압에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연대”를 표명했다. 한국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한국외대·서울시립대 등에서 교내 텐트 농성을 진행했다. 서울대 박종철 열사의 흉상에 팔레스타인 스카프 카피 예를 두른 학생들은 “사회 정의를 위해 투쟁했던 전통”을 국경 너머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미국 “전쟁 기업에 투자 철회하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학살을 중단하라!” 지난 4월 18일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최초로 텐트 농성 시위를 벌인 학생 108명이 경찰에 연행된 사건 이후, 미국 전역 대학가로 시위가 확산됐다. 체포·연행·정학을 감수한 미국 대학생들은 “인종 학살범들의 피 묻은 손을 잡는 것을 규탄한다”며, 정부를 향해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 중단’을, 학교 측에는 전쟁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시위 참가 학생 13명이 졸업 서류 처분을 받은 하버드 대학의 졸업식에서는 수백 명의



졸업생들이 “자유 팔레스타인”을 외치며 항의의 퇴장했다. 5월 초 기준 미국 대학교 50여 곳에서 시위 참여로 체포된 학생들은 2,500명 이상이다. 이처럼 조 바이든 정부는 대학가의 ‘학살 반대’ 저항을 ‘반유대주의’로 낙인찍고, 평화 시위를 폭력 진압으로 억누르고 있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부와 영향력이 막강한 유대계 유권자의 눈치를 보고 있다. 미국 하원은 지난 5월 1일, 학생 시위대 처벌뿐만 아니라 시위 단속을 안한 대학교에 연방정부 예산을 끊을 수 있는 권한

을 교육부에 쥐어주는 ‘반유대주의 인식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 수정헌법 제1조에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에서 “이스라엘이 지향하는 모든 것에 대한 비판이 반유대주의로 처리될 수 있다”(워싱턴포스트)는 우려가 나온다. 학생들은 “이스라엘의 대량학살과 미국 정부의 지원을 비판하는 것이지 반유대주의가 아니다”라고 항의한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향한 인류애, 그리고 부당한 검열에 맞선 저항 정신을 미국 대학생들은 전 세계 청년들의 머리 위로 쏘아 올리고 있다.



①미국 텍사스 대학교, 2024.4. ©Reuters. ②미국 하버드 대학교, 2024.5. ©Boston Herald. ③이스라엘 2024.5. ©+972. ④프랑스 2024.5. ©AFP. ⑤서울 광화문 행진에서 나눔문화, 2024.3. ©나눔문화.

특별인터뷰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독재 시절 같은 윤석열 정권의

“권력과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99% 시민들의 독립 언론”, 4만 5천여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한국탐사저널리즘 센터(뉴스타파). 검찰과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혐의를 앞장서 보도하면서 ‘언론 탄압’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제작을 총괄하는 심인보 기자를 만났습니다. 심기자는 2005년 KBS에 입사, 2015년에 <뉴스타파>로 옮겨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검찰개혁』의 공저자이기도 한데요. 검찰 권력의 현실, 그리고 기자로서의 다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인터뷰 | 임소희 이사장, 윤지영 연구원



### 심인보 기자님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보도해 세상에 알렸죠.

2020년 보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음모라고 <뉴스타파>를 공격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직전에는 ‘고발 사주’ 사건이 있었는데, 손준성 검사가 저를 포함해 여러 명을 대상으로 ‘윤석열·김건희·한동훈 명예훼손’ 고발장을 작성하여 김용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한 사실이 폭로됐죠. 올해 총선 직전에는 제가 출연했던 MBC 라디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습니다. ‘김건희·최은순 노가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약 23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저의 방송 발언은 검찰 수사로 확인된 사실임에도 말이죠.

### 그 외에 윤석열 정부의 부정이 폭로될 취재 사건을 선별해 본다면 무엇이 있나요?

너무 많죠. ‘VIP 격노설’이 나온 채해병 순직 사건 등 드러난 사건들은 물론이고요.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무마 의혹 등 ‘검사 윤석열’의 행적을 보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들은 더 많고요. 그 사실들을 밝혀내고 싶습니다. 물론 핵심 증거들이 검찰 캐비닛 안에 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서 제보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비정상적인 권력 행사가 벌어졌다는 증언도 많아서, 계속 사실을 확인하며 취재 중입니다.

### 최근 <뉴스타파>가 국가정보원의 비밀 문건을 입수해 특종을 보도했습니다.

네. 검찰이 지난해 국정원 압수수색으로 확보했던 2급 기밀 문건을 <뉴스타파>가 입수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문건인데, 모두 45건에 140여 쪽에 달합니다. 검찰은 그동안 송금의 목적을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주장해왔죠. 하지만 문건에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북한이 ‘주가조작’을 모의한 첩보가 담겨 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증거를 ‘선택적’으로 무시했다는 사실이 취재를 통해 드러난 것이죠.

### 검찰 비위를 꾸준히 보도해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뉴스타파>의 취재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권력의 오작동을 감시하는 취재인가. 둘째는 파편적으로 알려진 사실을 더 길고 넓은 맥락에서 보여줄 수 있는 취재인가. 셋째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취재인가입니다. 그런데 무수한 사건사고를 취재하다 보면, 반드시 검찰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의적 수사, 선택적 기소 등 사건 왜곡의 중심에 검찰이 있는 거죠. 우리 삶의 중

요한 정책들이 정치를 통해 결정되는데, ‘정치 검찰’이라는 이물질이 끼어두고 있습니다. 민의를 수렴하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최상단에서 왜곡시키고 있는 검찰의 이런 행태를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검찰 특별비’ 취재 당시, 검찰이 쓰는 것과 같은 파란색 박스에 영수증을 받아 왔죠. 검찰이 압수수색을 받는 것 같다는 반응이 많았습니

다. 지난해 전국 67개 검찰청의 특수활동비(기밀 수사 경비) 예산을 검증했을 때였죠. 매년 수백억 원대의 검찰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이 공개된 것은 사상 최초였습니다. 정부기관인 검찰이 ‘예산 집행 감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검찰청을 방문해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도 검찰은 거절했는데,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이 3년 5개월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 끝에 자료를 받아냈어요. 주요 정보가 지워져 있었고, 일부 자료는 불법 폐기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추적 끝에 검찰의 수많은 불법적인 예산 사용 관행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2024년 특수활동비가 10% 감액됐는데, 전액 삭감도 시원치 않은 판이라 아쉽습니다.

### 심인보 기자님이 보도한 ‘최수와 검사’ 시리즈(2019-2021)는 특별수사부 검사들이 벌인 불법 수사의 적나라한 실체를 드러냈습니

다. 검찰의 수사 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집니다. 그런데 최수들은 그 안을 유일하게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 혹은 수사 협조자요. 인지수사를 하는 특수부 검사들은 재소자를 탐문해 사건을 발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진술 조작, 회유·협박, 모해위증교사까지 불사해 대형 사건을 만들어내고 싶은 유혹이 따르죠. 재소자들은 검사들의 위법수사에 대해 증언했지만, ‘범죄자를 어떻게 믿어’라며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증언을 철저히 검증했고, 상당 부분이 사실임을 밝혀냈습니다. 금융범죄를 저질러온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와 검사들 간의 유착 문제까지 보도했고, 관련자들의 구속으로 이어졌습니다.



①라카페 갤러리에서 인터뷰 ©나눔문화, ②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보도하는 심인보 기자 ③2023년 9월, 검찰의 <뉴스타파> 압수수색 ©뉴스타파

# 언론 탄압,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 검찰과 언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언론이 검찰 비판의 소임을 다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 언론의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 발기사는 대개 적은 수의 법조 출입 기자들이 한정된 우리 안에 갇혀서, 검찰이 던져주는 ‘썩은 고기’를 받아먹는 것과 같아요. 검찰은 잘 받아 쓸 언론을 선택해 던져주죠. 검찰과 평소에 친분 관계를 잘 형성한 기자가 유능한 기자로 인정받고요. 검찰 취재 기자들 사이에 ‘외곽 취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사에게 들은 정보를 확인차 사건 당사자를 접촉하는 등의 취재 활동을 가리키는데,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외곽 취재가 ‘본래 취재’이고, 검찰에게 다시 확인하는 것이 ‘보충 취재’가 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 권력의 오작동을 감시하고, 파편적 사실의 맥락을 보여주고, 약자를 대변하는 ‘취재 원칙’과 ‘사실 확인’의 언론 전통까지 지켜야 할 것을 지켜가겠습니다.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검찰은 지난해 9월 <뉴스타파>를, 12월에는 김용진 대표의 자택까지 초유의 압수수색을 했었

죠. 지금도 그날이 생생합니다. <뉴스타파>가 ‘대선 개입 여론조작’을 했으며, 영장에는 명예훼손 피해자로 ‘윤석열’이 적혀 있었죠. “대선 정치 공작”, “사형에 처할 반역죄”, “계간해야”라는 정부·여당 인사들의 발언들이 잇따라 나온 시점이었고요. 검찰은 김만배(대장동개발 특혜의혹 핵심피의자)와 신학림(前뉴스타파 전문위원) 두 사람 사이의 출판물 매매 거래가 기사 작성과 무관하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뉴스타파가 돈을 받고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몰아갔습니다. 압수수색 이후에 추측 명칭에 맞춰 국민의힘은 전국에 “조작 뉴스타파”라는 현수막을 걸었고요. 제 딸들도 그걸 직접 봤죠. 검찰의 진짜 목적은 <뉴스타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다른 언론사에는 두려움과 위축감을 주고요.

### 대통령실과 정부기관, 여당 그리고 검찰까지 총동원한 언론 탄압이 벌어졌네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은 전두환 군부 정권에 비견할 정도입니다. 언론사 압수수색, 역대 최대 법정제재, 공영방송 인사 교체, 방송 편성 개입 등이 무섭게 벌어지고 있죠. <뉴스타파>를 상대로 검찰 최정에 조직인 반부패수사부가 10명이 넘는 검사를 동원해 1년 가까이 수사하고 있고요. 검찰이 과연 어떻게 기소하고, 법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끝까지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공작의 연기가 걸리고 나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 권력의 탄압에 흔들릴 때는 없었나요?

특종을 낼 때 기자는 ‘피리침’이 되는 기본입니다. 기자가 기사를 발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대한 전하 구름이 몰려와 번개가 내려질 수밖에 없는 때가 되었을 거예요. 그 큰 압력을 받아내야 하는데, 권력의 탄압뿐 아니라 응원하는 분들의 기대도 감당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기자의 소명을 되새기죠.

### 기자로서 이루고 싶은 소망이 무엇인가요?

레거시 미디어의 독과점 폐해도 있지만 좋은 규범과 전통도 있습니다. 혼탁하고 망가지는 언론 환경 속에서, 특히 ‘사실 확인’의 전통은 잘 보존해서 후세에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뉴스타파>는 대안 언론이 아니라 레거시 언론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내는 역할이 주어진 소망이라고 여깁니다.

### 첫 만남에 <나눔문화> 후원회원이 되었는데요. 회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뉴스타파>는 표면의 파도를 일으키고 싶어 한다면, <나눔문화>는 심해의 조류를 바꾸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언론이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 무감각해지지 말고 날카로운 감각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타파>도 권력과 자본의 힘에 흔들리지 않는 길을 걸어하겠습니다. 많은 제보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 2012-2024 <뉴스타파> 특종 보도

<p><b>2012</b></p> <p>이명박 정부의 4대강 토건 사업, 민간인 사찰 등 보도.</p>	
<p><b>2013</b></p> <p>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대선 개입,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조세피난처의 한국인들’ 국제 협업 프로젝트.</p>	
<p><b>2014</b></p> <p>특별기획 ‘진실과 망각’, ‘원전 목석류 2014’.</p>	
<p><b>2015</b></p> <p>백남기 농민을 향한 살인적 물대포 진압 현장 포착.</p>	
<p><b>2016</b></p> <p>삼성 이견희 회장 성매매 의혹,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연속 보도.</p>	
<p><b>2018</b></p> <p>삼성과 장관·법조·언론계의 유착 관계 ‘장충기 문자’ 폭로.</p>	
<p><b>2019</b></p> <p>‘최수와 검사’ 연속 보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개입 의혹.</p>	
<p><b>2020</b></p> <p>‘한만호 비망록’ 공개, 검찰의 진술 조작 의혹,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p>	
<p><b>2022</b></p> <p>윤석열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이 담긴 ‘김만배 녹취록’ 공개.</p>	
<p><b>2023</b></p> <p>‘검찰 특별비’ 예산 검증,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정부 민원’ 의혹.</p>	
<p><b>2024</b></p> <p>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국가정보원 기밀 문건 공개.</p>	

#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민의를 실현하는 정치

지난 6월 5일, 제22대 국회가 ‘야당 단독 개원’과 ‘국회의장 단독 선출’로 시작됐습니다. 집권 여당이 국회법에 정해진 시한을 따르지 않고 불참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제22대 국회는 총 300석 중 범야권이 192석(더불어민주당 175석·조국혁신당 12석·개혁신당 3석·진보당 1석·새로운미래 1석)으로 압도적 다수입니다. 반면, 행정부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인 21%까지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의民意는 지금, 국회에 실려 있습니다.

## 무능·무도한 정권에 대한 심판

이번 총선에 담긴 민심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었습니다. 사전 투표율(31.28%)과 재외국민 투표율(62.8%)은 사상 최고였고, 최종 투표율(67%)은 32년 만에 최고였습니다. 제1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한 것도, 대통령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인 것도 헌정 사상 최초입니다. 집권 여당의 참패는 윤석열 정부 취임 2년의 성적표이자 주권자의 경고장이었습니다. 특히 “경제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디언)가 컸습니다. 나라 경영 실패로 인한 세수 결손의 부담은 공적

지원 축소로 서민에게 떠넘겨졌고, 치솟는 물가 속에 민생고는 깊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총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과 875원은 합리적”이라는 물정 모르던 발언은 “좌파와 우파를 넘어 대과 총선”으로 민심을 폭발시켰습니다. 지난 2년간 검찰 권력을 앞세운 무도한 정권, 민생 경제를 파탄 낸 무능한 정권, 국민 생명과 안전에 무책임한 정권, 그리고 친인척 비리만을 무마해온 정권을 국민은 엄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당이 “의석 수는 이전과 비슷하다”며 남은 3년도 변함없이 ‘대통령 거수기’로 입법권을 훼손하려 한다면, 윤석열 정부와 함께 더 큰 심판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 ‘촛불혁명’ 이후 8년의 시간 동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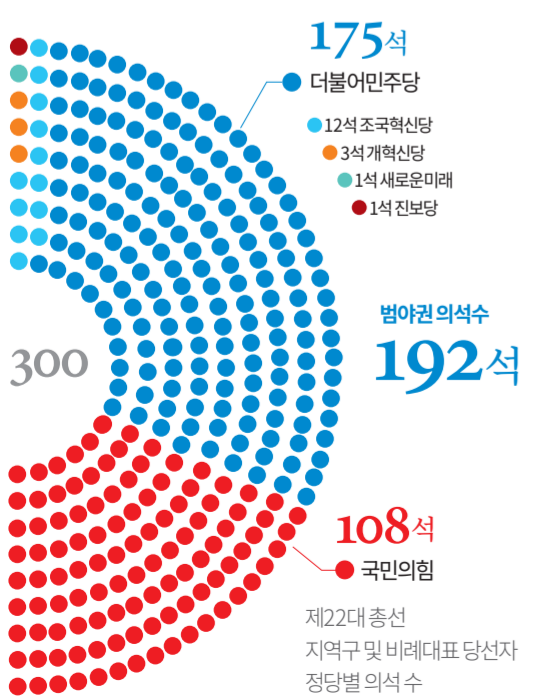
2016~2017년 전 국민적 항쟁으로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를 이뤄낸 ‘촛불혁명’. 그러나 대통령 한 명 교체로는 뿌리 깊은 적폐와 공고한 기득권 체제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한 국민들은 “이게 다 야당(당시 자유한국당) 때문”이라며 ‘의회 심판’을 다짐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은 집권 여당 최초로 180석이라는 전례 없는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촛불혁명의 결실로 세워낸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한뜻으로 개혁을 완수하라는 간절하고도 강력한 민의였습니다. 하지만 쥐여준 힘과 기대와 달리 청산과 개혁은 흐지부지됐고, 혁명 뒤의 반동인 듯 등장한 최초의 ‘검찰 정권’의 폭주 속에서도 납득할 수 없을 만큼 무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8년의 시간 동안 실망과 분노를 견뎌온 시민들은,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 더 가속될 것이라는 나라의 위기 앞에 다시 야당에 압도적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후보자들은 국민 승리의 도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말대로, 이번 총선 민심은 망가진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개혁 입법을 힘 있게 추진하라는 명령이자 마지막 기회임을 범진보 당선자 모두가 새겨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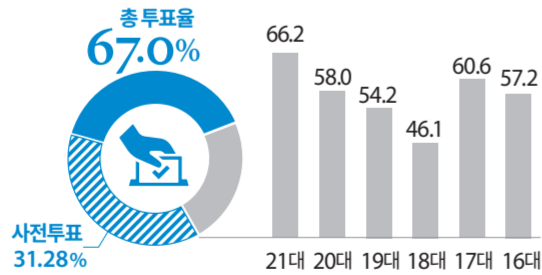
## 총선 압승을 이끈 ‘공천혁명’

이러한 ‘민심’ 이전에 ‘당심’이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현 정부를 견제할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100만여 명. 2021년 기준 약 130만 명이던 권리당원은 2023년 기준 245만 명을 넘어섰고, 전체 당원 수 500만 명의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당원이 많은 정당”이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물결의 민주 진보 시민들이 개혁의 주체인 정당을 바꿔내며, 이번 총선에서 아래로부터의 ‘공천혁명’을 이뤄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당 대표나 최고위원의 공천이 아닌 당원 투표를

## 제22대 정당별 의석수



## 제22대 총선·역대 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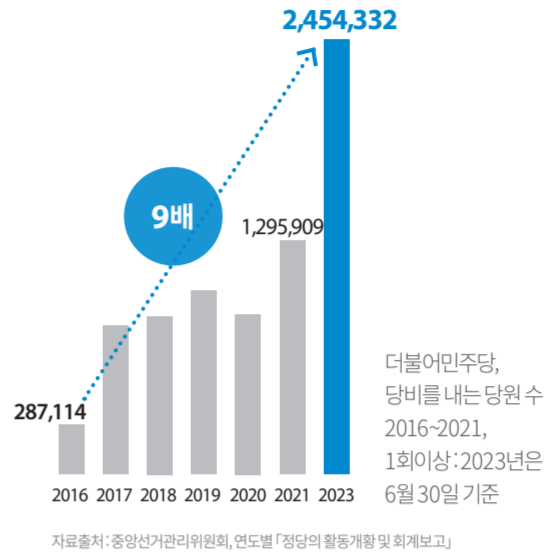


사전투표 첫날, 서울여의동주민센터에 길게 늘어선 줄.45.©뉴스스



‘윤석열 정권 심판’ 상징이 된 대파 및 명품백 풍자 투표.©SNS 캡처

##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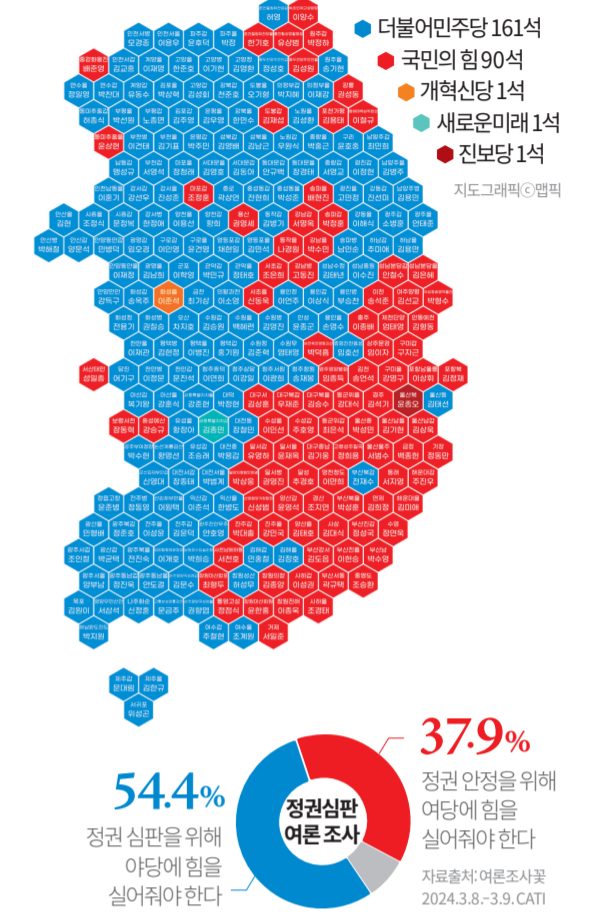


희 여사 비호’가 있습니다. 민심을 확인한 총선 이후 검찰총장이 ‘김 여사 엄정 수사’를 지시했지만 옛세 만에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격 교체됐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종결 처리해 면죄부를 주었으며, 검찰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중점 변경·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는 가운데 침거하던 김 여사는 다시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그러는 사이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경제주권을 침탈”한 네이버 라인 사태에는 침묵하고, 북한을 도발해 오물 풍선 등으로 안보 불안을 부추기고, 각계에서 의문을 제기한 동해 석유 탐사 시추에 천문학적 세금을 들이려는 등의 행보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 국회는 ‘민생 회복’과 ‘개혁 입법’을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폭정을 막을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쥐여줬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생 회복입니다. 외교 실패, 안보 위기, 민주 퇴행, 경제 파탄은 하나입니다. 독재적 정부는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민생경제를 위협합니다. 제22대 국회를 ‘개혁 국회’로 이끌어, 국가의 기능과 위상을 퇴행시킨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바

## 제22대 총선 전국 지역구 당선 현황



로잡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거부하고 지난 국회가 좌절시킨 채해병 특검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지체 없는 진상 규명과 처벌을 이뤄내야 합니다. 수사권·기소권의 ‘형벌권’을 쥐고 정치적·사적으로 권력을 유용하지 않도록 검찰 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 각 영역에서 부정부패 독점을 해소해 민생 활력과 공정 분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역행하고 정체되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미중 대결과 각지에서 고조되는 전쟁, 치솟는 물가와 금리, 소수 금융세력의 세계 경제 재편, 4차 산업혁명 등 문명의 급변, 예고된 다음 팬데믹과 신체 주권의 위기, 사실 보도가 아닌 선동 도구가 된 언론, 극단으로 치닫는 불평등과 양극화, 무엇보다 ‘희망이 없다’는 위기까지. 앞을 내다보며 헤쳐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 약한 자 힘주고 강한 자바르게

정치의 근본은 ‘약한 자 힘주고 강한 자바르게’하는 것입니다. 이제 의회는 ‘민심의 대변자’를 넘어 ‘민심의 실현자’가 돼야 합니다. 명분과 구호를 넘어 결과로 증명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준 힘으로, 모든 권한을 동원해 국회의 시간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 것인가, 나 어떤 사람이 되어갈 것인가’ 숙고하며 함께 희망의 주체와 씨알을 키워가기를 바랍니다.

반영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투표 참여율은 60%를 기록, “지난 대선을 능가하는 수치”였습니다. 수백만 당원은 경선 과정 내내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우지 않고”, “불법, 비리, 특혜 전력이 있고”, “윤 정부보다 당 대표를 더 맹렬히 공격하고”, “천 원짜리 당원이라고 무시하고”, “협치를 빌미로 개혁 입법을 가로막은” 후보들에 대해 치열한 토론과 검증을 벌였고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민심을 실현할 후보들에게 힘을 모아주었습니다. 그 결과 현역 의원 교체율 42.5%라는 전례 없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의 주인은 당원’임을 확인하는 성취감과 효능감을 맛보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총선 유세 현장마다 “대선을 방불케 하는 열기”를 보이며 총선 압승까지 이어갔습니다. 대의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최대한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준 ‘공천혁명’은, 정치 성향과 지지 정당을 떠나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역사로 계승해나갈 지점입니다.

## 윤 정부의 뇌관, 김건희 여사 비위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정치적 탄핵’을 선고받았습니다. “상대국들, 윤 외교에 유효기간 있다는 가정 아래 움직일 수도”(월스트리트저널)라는 외신 보도가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민심을 잃은 정부의 외교력은 추락했습니다. 자유 민주 인권의 퇴행은 멈출 줄 모릅니다. 민생고와 물가고는 고개를 숙일 줄 모릅니다. 남북 적대 전쟁의 불씨는 꺼질 줄 모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에도 아랑곳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김건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특검을 촉구하는 해병대원들.31.©경향신문



‘김건희 특검’ 촛불집회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국제뉴스, 연합뉴스



쏟아지는 정보에 길을 잃기 쉬운 시대, 세계는 어떻게 변모하고 있을까요? 고물가·고금리의 고통을 떠날기는 극소수의 경제 조작 세력. 팬데믹 이후 새로운 세계 질서를 계획하는 국제 보건 세력과 코로나19 백신의 진실, 급진하는 AI 기술과 너무 쉽게 일상에 파고들고 있는 감시·통제 시스템까지. 우리 삶에 미칠 '지속적 영향력'과 '역사적 중요성'에 비추어, 주목해야 할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 ‘슈퍼 유저’에게만 제공된 비공개 경제 정보 연방준비제도가 조작해온 인플레이션 측정법



지난 3월, 미국 노동통계국 공무원이 인플레이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 지표인 소비자물가지수(CPI)의 비공개 세부사항을 50여 명의 ‘슈퍼 유저’(super users)에게만 공유한 사실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인플레이션 수치는 경제 정책의 기초이며, 특히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 기준이 된다. 주식시장에서는 0.01% 차이로도 투자 우위를 점할 수 있기에 “정부가 비밀리에 등록된 ‘슈퍼 유저’에게만 민감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의혹이 거세게 제기됐다. 노동통계국은 해당 공무원의 개인 행동이며 그런 명단은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해관계 그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해당 공무원은 ‘슈퍼 유저’ 그룹과 지속적으로 연락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앞서 1월 31일에 이들에게만 공유된 소비자물가지수 급등 원인을 설명한 문서는 2월 중순이 넘어서야 대중에게 공개됐다. 이 ‘슈퍼 유저’ 리스트에는 JP모건체이스, 블랙록을 비롯해 영국 최대은행 바클레이, 일본 투자은행 노무라 홀딩스, 프랑스 금융 그룹 BNP파리바 등의 대형 투자기관과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브레반 하워드, 시타델 등의 헤지펀드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물가지수는 경제의 가장 중요한 지표이지만, 소수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조작’되어왔다. 지금 한국은 물론 세계가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 미 연준이 4월 공개한 소비자물가지수는 3.4%로 체감과 너무나 다른 수치였다. 2022년 1월,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소비자물가지

수에서 식품·에너지·원자재·공산품·주거비를 제외’한 ‘슈퍼코어’(supercore) 인플레이션 측정법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중산층 가정 예산에서 85% 이상을 차지하는 이 항목들을 제외하자 인플레이션 수치는 급격히 2%대로 떨어졌다. “어떤 수치적 달성이 정치적 행동의 목표가 되면 기본 지표가 조작의 대상이 된다”(영국 경제학자 찰스 쿡트)는 바로 그 사태다.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따르면 실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 이후 20%, 2010년 이후 50% 상승했는데, 이는 저축이나 임금의 구매력이 절반 가까이 파괴되었음을 의미한다. 올해 11월 대선을 앞둔 미 정부와 언론은 입을 모아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보도하지만, 미국인의 40% 이상이 근로빈곤층에 속해 있으며(미 인구조사국), 27%는 일상생활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포춘). 극소수가 비밀 정보를 제공받아 수조 달러의 이익을 독점하고, 연준 등의 기관이 이들의 요구에 굴복해 인플레이션 수치를 조작하는 동안 그 피해는 실물 경제와 임금 근로 계층에게 전가됐다. 2020년 이후 상위 1%의 자산은 인플레이션보다 3배나 빠르게 증가해 2배 이상이 된 반면 세계 50억 명은 실질 임금 감소로 가난해졌다(옥스팜 2024.1.). 블룸버그는 4월 “이번 ‘슈퍼 유저’ 폭로로 주요 자산의 거래 방식과 연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정보가 공개되는 방식에 대해 심층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불법적 사안에 대한 규명 및 책임과 함께, 진실을 조작해 우리의 눈을 가리며 세계의 부를 수탈하는 세력이 저항해나갈 때이다.



①민감한 경제 통계를 비밀리에 제공하는 ‘슈퍼 유저’ 투자은행, 자산운용사, 헤지펀드사들. ②전미경제연구소가 측정한 실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와 연준의 공식 수치 간의 차이. ③점점 더 심화되는 세계 양극화.

## WHO(세계보건기구) 팬데믹 조약 추진 각국 시민 “국제 보건 세력의 쿠데타” 저항



WHO가 6월 1일, 세계보건총회에서 팬데믹 조약 표결을 1년 내로 미룰 것을 결정했다. ‘파기’가 아닌 ‘연기’된 이번 협약에는 치명적 내용이 담겨 있다. ①WHO 판단 하에 회원국에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가 선언된다. ②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없다. 회원국이 종료를 요구할 수도 없다. ③WHO가 의약품 및 백신 등의 사용을 정한다. 각국의 선택권은 제한된다. ④WHO가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를 규정, 통제할 권한을 갖는다. ⑤협약의 법적 구속력은 WHO 재량에 맡겨진다. 각국에서는 저항이 터져 나왔다. 일본에서는 수천 명이 반대 시위에서 “주권 침해 WHO에 항의한다”고 외쳤다. 영국도 반대 청원에 10만 명 넘게 서명했다. 미국은 22개 주 법무장관과 49명 의원이 탄원서를 발표했다. 슬로바키아 등 10여 개국도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 그런데 팬데믹 조약은 연기됐지만, 국제보건규정(IHR)은 일부 개정됐다. “넓은 지리적 전파”, “국제적 행동 필요” 등의 4개 조건 충족 시 WHO가 기존 규정인 ‘국제공중보건 위기’에 더해 ‘팬데믹 위기’를 선포하고 회원국의 공동 대응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팬데믹 조약까지 체결되면, 이 개정안은 강제성을 갖게 된다. WHO의 행보는 진정 질병 퇴치를 위한 것일까. WHO의 기부금 납부 순위(2022)를 보면, 미국·독일·빌 게이츠 재단·세계백신면역연합 등의 순이다. 세계백신면역연합은 빌 게이츠 재단의 자금 지원을 받기에, 제약회사와 얽힌 세력이 사실상 WHO를 움직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WHO는 사적 이익집단이 통제해왔다. 그들은 이미 팬데믹의 정의를 그들 편에 따라 변경한 바 있다. 치명적 질병이 아니더라도, 널리 퍼져 있지만 하다면 팬데믹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건 독재에 맞서는 건 시민들의 의무이다.”(크리스치앙 페론 전 WHO 유럽 백신 전문가위원회 부의장) 개인의 몸과 삶에 대한 결정권은 끝까지 지켜야 할 ‘최후의 영역’임을 기억할 때이다.

WHO가 6월 1일, 세계보건총회에서 팬데믹 조약 표결을 1년 내로 미룰 것을 결정했다. ‘파기’가 아닌 ‘연기’된 이번 협약에는 치명적 내용이 담겨 있다. ①WHO 판단 하에 회원국에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가 선언된다. ②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없다. 회원국이 종료를 요구할 수도 없다. ③WHO가 의약품 및 백신 등의 사용을 정한다. 각국의 선택권은 제한된다. ④WHO가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를 규정, 통제할 권한을 갖는다. ⑤협약의 법적 구속력은 WHO 재량에 맡겨진다. 각국에서는 저항이 터져 나왔다. 일본에서는 수천 명이 반대 시위에서 “주권 침해 WHO에 항의한다”고 외쳤다. 영국도 반대 청원에 10만 명 넘게 서명했다. 미국은 22개 주 법무장관과 49명 의원이 탄원서를 발표했다. 슬로바키아 등 10여 개국도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 그런데 팬데믹 조약은 연기됐지만, 국제보건규정(IHR)은 일부 개정됐다. “넓은 지리적 전파”, “국제적 행동 필요” 등의 4개 조건 충족 시 WHO가 기존 규정인 ‘국제공중보건 위기’에 더해 ‘팬데믹 위기’를 선포하고 회원국의 공동 대응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팬데믹 조약까지 체결되면, 이 개정안은 강제성을 갖게 된다. WHO의 행보는 진정 질병 퇴치를 위한 것일까. WHO의 기부금 납부 순위(2022)를 보면, 미국·독일·빌 게이츠 재단·세계백신면역연합 등의 순이다. 세계백신면역연합은 빌 게이츠 재단의 자금 지원을 받기에, 제약회사와 얽힌 세력이 사실상 WHO를 움직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WHO는 사적 이익집단이 통제해왔다. 그들은 이미 팬데믹의 정의를 그들 편에 따라 변경한 바 있다. 치명적 질병이 아니더라도, 널리 퍼져 있지만 하다면 팬데믹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건 독재에 맞서는 건 시민들의 의무이다.”(크리스치앙 페론 전 WHO 유럽 백신 전문가위원회 부의장) 개인의 몸과 삶에 대한 결정권은 끝까지 지켜야 할 ‘최후의 영역’임을 기억할 때이다.

4월 13일, 일본에서 열린 ‘팬데믹 조약 반대’ 집회에서. ©Kla.TV



## 미국, 임상시험에 ‘사전 동의’ 절차 삭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의학 실험에 대해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를 필수로 규정한 ‘뉴른베르크 강령’.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은 충분한 임상시험이 없었고, 기존에 없던 유전자 약물 ‘mRNA 백신’이었지만 사전 동의 절차도 없었다. 사상 유례없는 ‘전인류 집중’ 자체가 거대한 임상시험이었다. 그런데 미국은 아예 올해 1월부터 “임상시험이 피험자에게 최소한의 위험만을 초래하는 경우, 사전 동의를 구하는 의무에서 예외를 인정한다”는 ‘21세기 치료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식탁에 올라가는 소·돼지·닭 등에 mRNA 백신 접종’(빌 게이츠)이 추진되고, 식물을 기반한 ‘먹는 백신’도 개발 중인 상황. 누구든 의도치 않게 시험 약물의 실험 대상이 되고, “최소한의 위험”이 믿지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상이 오고 있다.

## 인간 뇌에 최초로 칩 이식 인간-기계 결합의 ‘트랜스 휴먼’ 시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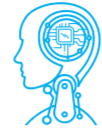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업인 뉴럴링크.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간 대상 임상시험을 허가, 올해 1월 처음으로 인간 두뇌에 칩을 이식했다. 지금은 마우스 커서를 조작하는 정도의 ‘명령 전달 장치’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뇌와 기계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간 변형’이 목표다. 우선은 시각 장애인의 시력 회복, 마비 환자의 근육 운동, 자폐증·우울증·정신분열증·비만 치료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뇌 임플란트 기술의 지향점은 인간-기계 결합의 사이보그, 즉 ‘트랜스 휴먼’의 탄생이다.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제어하고, 각종 정보가 뇌에 저절로 전달되고, 뇌파 통제로 불치병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몸이나 로봇에 인간의 기억을 옮기는 ‘마인드 업로딩’으로 ‘불멸’을 추구하는 것이다. 지난 3월, 미국 싱크탱크 랜드사는 ‘인간 증강’ 기술로 인해 2035~2050년 사이에 “지적·신체

적·심리적 능력을 크게 향상한 새로운 형태의 인간”이 출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사용자 뇌에 조작된 정보를 전달하는 ‘인간 해킹’의 위험도 경고했다. 이러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경제력에 따라, 정보 습득의 격차가 새로운 인간 계급을 형성할 위험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중국 뇌과학연구소도 내년에 인체 실험 계획을 밝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상용화 시대는 성큼 가까워지고 있다.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의 비율은 1% 미만이고, 거의 모든 지능은 디지털이 될 것”(일론 머스크 뉴럴링크 설립자). 기술 편리와 초인간적 능력이라는 ‘절대 반지’를 쥐고 뇌파의 전기 자극에 따라 행동하고 조작되는 인간 변형의 예고 앞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의 의식은 진정한 나의 것인가’, ‘자유의지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깊은 물음을 품어가야 할 때이다.

적·심리적 능력을 크게 향상한 새로운 형태의 인간”이 출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사용자 뇌에 조작된 정보를 전달하는 ‘인간 해킹’의 위험도 경고했다. 이러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경제력에 따라, 정보 습득의 격차가 새로운 인간 계급을 형성할 위험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중국 뇌과학연구소도 내년에 인체 실험 계획을 밝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상용화 시대는 성큼 가까워지고 있다.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의 비율은 1% 미만이고, 거의 모든 지능은 디지털이 될 것”(일론 머스크 뉴럴링크 설립자). 기술 편리와 초인간적 능력이라는 ‘절대 반지’를 쥐고 뇌파의 전기 자극에 따라 행동하고 조작되는 인간 변형의 예고 앞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의 의식은 진정한 나의 것인가’, ‘자유의지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깊은 물음을 품어가야 할 때이다.

### 인공지능(AI)을 장착한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의 쓸모를 묻다



지난 3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상황을 설명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최초의 AI 인간형 로봇 ‘피규어01’을 공개했다. 이어 5월 오픈AI가 공개한 인공지능 ‘GPT-4o’는 글뿐 아니라 사진·영상·음성 등의 데이터도 처리하고, 사람의 표정·목소리·역양 등에서 감정을 파악해 대응하며, 실제 사람과 비슷한 속도로 말을 주고받고, 50개 언어를 실시간 통역한다. 스스로 학습, 판단하는 동시에 통제 불가의 위험까지 있는 ‘범용AI’의 출현이 머지않았다는 관측이다.



등 정교한 작업을 소화한다. 게다가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이어 보스턴다이나믹스가 올해 공개한 ‘올 뉴 아틀라스’ 또한 대량 생산 계획을 밝혔다. 그렇게 되면 소형 승용차 한 대 가격에 로봇을 들일 수 있어, 2030년대에는 ‘1가구 1로봇’ 시대가 열린다는 전망도 있다. 이에 ‘로봇이 인간을 대체한다’는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아마존이 물류창고에 이족 보행 로봇 ‘디지트’를 배치하자, 노동조합은 인력 감축 수단이라며 반발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전면 허용된 자율주행 택시에 불을 지르는 “21세기 판 러다이트”가 벌어졌다. 미국인 응답자 64%는 ‘10년 내 컴퓨터나 로봇이 본인 업무를 대신할 것’(퓨리서치센터 2023)이라고 답했다. AI의 힘을 독점한 극소수와 대량 실업의 잉여 인간으로 나뉘는 극단적 불평등의 미래는 기우가 아니다. AI 기술의 편리함과 생산성이 보편의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로봇(Robot)의 어원이 ‘노예·고역’을 뜻하는 로보타(Robota)이듯, ‘로봇의 일’ 대신 ‘인간의 일’을 하며 인간 존재와 삶 자체가 더 나아가는 미래를 위해서 말이다.

### 팬데믹 ‘집단 학습’ 이후, 얼굴 스캔 급진



열 감지 카메라·안면 인식 추적·QR코드 등 코로나 팬데믹 ‘집단 학습’ 이후, “얼굴이 스캔되는 세상”이 급진하고 있다. 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만이 아니다. 올해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는 안면 인식 ‘생체 티켓팅’을 도입, 영국은 상점 절도범 식별용 얼굴 인식 스캐너를 변화기에 설치 추진, 유럽연합(EU)은 표정에서 감정을 예측해 공격성 임계값을 초과하면 경고를 보내는 AI 기술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모이는 것과 감정 자체가 ‘잠재적 범죄’인 현실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78개국 정부 기관이 안면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시위자 추적 및 처벌에도 쓰이고 있어 “얼굴 인식이 대중 저항을 막는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

### 이스라엘의 인공지능 살인 시스템 <아빠 어디야> 팔레스타인 여성과 아이까지 무차별 공격



이스라엘의 인공지능(AI) 살인 무기 ‘라벤더’. 라벤더는 가자지구 전체 주민 230만 명의 정보를 수집, 약 3만 7천 명을 암살 표적으로 설정했다. 오차율은 10%, 하지만 ‘인간 요원’들은 단 ‘20초’만 검토하고 승인 도장을 찍는다. 이스라엘군의 또 다른 AI 시스템 ‘아빠 어디야’. 가정집에서 표적을 찾는 이 시스템은 하급 적군 한 명에 대해 15~20명의 민간인 피해자를, 타깃이 고위급이면 100명 이상을 ‘허용’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누구를 죽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즉시 다음 목표로 이동한다. 가능한 한 빨리, 최대한 많은 타깃을 생성하는 것이 강조되었다.”(이스라엘 정보요원) 군용 AI에 대해 “생존 도구”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그러나 가자지구 사망자 대부분은 여성과 아이들이다. AI 무기 도입의 명분이 ‘정밀 타격’

### 해외정보감시법 “세계인터넷장악”



지난 4월, 미국의 해외 정보감시법(FISA) 702조가 2026년까지 연장됐다. 1978년 제정된 FISA는 미국 영토 밖에서 외국인에 대한 도청·감청, 거주지 비밀수색 등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2001년 9.11 사태 이후 부시 정부는 미국 내에서도 영장 없는 집행과 내국인 감시를 허용, 이에 외적 권한을 2008년 법률로 제정한 것이 ‘FISA 702조’다.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안 전보장국(NSA)이 보고하는 일일 정보의 60%가 FISA를 통해 입수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감시 권한은 더욱 강화됐다. 이에 “702조는 미 정보기관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감시 도구”(윌스트리트저널), “역사상 가장 급격하고 무서운 정부 감시의 확장”(론 와이든 상원의원)이란 지적이다. ‘세기의 내부고발자’이자 CIA·NSA 정보 분석원 출신인 에드워드 스노든 또한 법안 통과 전에 “NSA가 모든 인터넷을 완전히 장악하게 됐는데, 어떤 언론도 보도하지 않아 누구도 모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 “오늘도 계속되는 ‘대재앙’에서 부디 가자의 형제들이 살아남기를”



<자이투나 나눔문화학교> 교장 자이납 Zainab 연구원의 편지

지난 2006년 박노해 시인과 나눔문화는 레바논 내 최대 팔레스타인 난민촌 ‘아인 알 할웨’에 <자이투나 나눔문화학교>를 세웠습니다. 100여 명의 아이들이 팔레스타인 역사와 전통을 배우고 있는데요. 학교 설립 때부터 교장을 맡고 있는 자이납 연구원이 회원님들께 보낸 편지를 전합니다.



‘나크바(대재앙)의 날’ 76년을 맞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는 자이납 연구원과 난민촌 주민들.

사랑하는 나눔문화 회원님들, <자이투나 나눔문화학교> 교장 자이납 연구원입니다. 올해도 ‘나크바의 날’이 돌아왔습니다. ‘나크바(Nakba)’는 아랍어로 ‘대재앙’이란 뜻으로, 1948년 5월 15일 이스라엘 건국으로 팔레스타인이 땅을 빼앗기고 난민으로 추방된 역사를 가리킵니다. <자이투나 나눔문화학교>가 있는 아인 알 할웨 난민촌에서는 해마다 모여 이날을 기억합니다.

#### 나크바 76년, 우리는 오늘도 저항한다

지금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학살과 추방의 ‘나크바’가 벌어지고 있기에, 올해 행사는 더욱 엄숙하게 진행됐습니다. 나크바의 날은 난민촌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에게 팔레스타인 여인들이 핏줄에 서린 ‘귀향의 꿈’을 물려주는 중요한 날입니다.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피켓을 만들었으며, 가장 어린 참석자였던 4살 소년 무함마드도 마이크를 잡고 힘차게 “Free, Free Palestine! (팔레스타인에 자유를!)”을 외쳤습니다. 저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나크바 76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여전히 빼앗긴 고향땅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땅에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 가자지구 형제여, 부디 살아남기를

성명은 가자지구 동포들에게 바치는 글로 마무리됐습니다. “가자지구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흘리는 피는 팔레스타인 민족 모두의 피입니다. 당신들의 저항은 폭정과 죽음에 굴하지 않는 인류 모두의 저항입니다.” 저는 성명을 낭독하며 울음을 참아야 했고, 참석자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가자지구 남부에는 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간신히 통화가 됐던 친구 이스라엘(Israa)은 세계 머물 곳도 없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저의 모든 것을 보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켜주고 싶어도 지켜줄 수 없고,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형제자매들 앞에 우리는 무력하기만 합니다.

#### 세계 시민들의 저항에서 희망을 느껴

지금 세계의 대학생들이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에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됩니다. 매주 한국에서 열리는 집회 소식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결같은 꾸준한 행동 덕분에, 한국 정부도 최근 ‘팔레스타인의 유엔(UN) 정회원국 가입 표결’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생각합니

다. 코리아와 팔레스타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꿈꾸는 마음만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 우리의 미래 <자이투나 나눔문화학교>

이곳 레바논의 아인 알 할웨 난민촌도 혹독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끼니를 걱정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고난에도 인간의 품격을 잃지 말자고, 서로 도우며 살자고 격려합니다. <자이투나 나눔문화학교> 아이들의 엄마들은 헌 옷을 모아 깨끗하게 빨아서 더 어려운 가정에 나누는 봉사활동도 함께 합니다.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소식에 슬퍼하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자라고 있는 한 우리는 끝나지 않는다. 너희는 팔레스타인의 미래다”라는 말을 자주 들려줍니다. 그리고 코리아 나눔문화 식구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말은 아이들에게 큰 자부심을 줍니다. 늘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는 나눔문화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다가오는 여름날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①② 나크바의 날에 직접 만든 피켓을 든 난민촌 주민과 <자이투나 나눔문화학교> 아이들. ③④ 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옥상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아이들.



# 천 년의 사랑, 그대 안에 올리브나무를

## 박노해 사진전 <올리브나무 아래> 순례객 후기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 나는 천 년의 올리브나무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고 다시 나의 길을 간다.”(박노해 시인) 팔레스타인, 요르단, 시리아 등에서 박노해 시인이 눈물과 기도로 담아온 37점의 사진이 있는 <올리브나무 아래> 전시가 나눔문화 라카페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사진전 시작 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폭격이 이어져 평화의 마음을 모으는 자리가 되었는데, 올리브나무가 지닌 ‘신성한 빛’과 ‘강인한 힘’ 속에서 순례객들이 남긴 말씀과 전시를 찾아온 중동의 벗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서늘한 복판에 있는 영혼의 쉼터. 인간의 기쁨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귀한 자리. 이 시공간에 함께한다는 자체만으로 가슴이 벅차오른다.”



“박노해 시인의 사진은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것들을 사랑으로 연결시켜주는 묘한 힘이 있다. 내가 보지 못한 세계를 마주하는 경험을 하며, 나의 삶이 부끄러워지기도 했다. 박노해 시인의 맑은 영혼에 정화되는 기분이 든다.”

“올리브나무처럼 말 없는 격려, 속 깊은 사랑, 은밀한 가호를 베푸는 이들을 돌아봅니다. 빛과 힘이 차오르네요. 다시 나의 길을 가보겠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저 높고 긴 물리적 장벽만큼, 우리들 각자가 쌓아놓은 마음속 장벽은 얼마나 견고한가. 올리브나무를 통해 전하는 시인의 시대 진단은 한없이 준엄하다. 광야의 외침 같은 시인의 잔잔한 노래는 불꽃같은 희망가이다.”

“사진을 보며 감동하기는 처음. 아... 나 왜 울고 있지...?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흘렀다.”

“A moving, poignant, get hoped exhibition at a time of great sadness and loss globally. Thank you for your work. 전 세계적으로 큰 슬픔과 상실의 시기에 열린 감동적이고 가슴 시린 전시에서 희망을 얻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알 자지라의 농부가 올리브나무를 가꾸는 한 편의 영도 「영혼을 위한 자리」. 팔레스타인 광야에서 온몸을 비틀며 살아온 천 년 된 올리브나무 「천 년의 사랑」. “저 높은 고원에 나를 마중 나오신 듯한 나무 하나. 세상에는 그토록 목중하고 한결같은 사랑의 사람 하나 있다.”(박노해) 「고원의 격려자」.

“어떤 유료 전시보다 애정하는 곳. 수식이 가 필요 없는 박노해 시인의 전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언제든 만나볼 수 있음에 감사하다. 널리 널리 인이 찾아가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먼 과거로부터 온 올리브 가지가 내 손에 들려있는 느낌과 함께, 성스럽고 싱그러운 기운이 전해졌다. 나도 누군가의 올리브나무가 될 수 있을까?”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깊이. 살아온 시간과 경험이 정말 묵직한 분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시류에 휩쓸려 자기다움을 놓치지 않도록, 마음의 닳을 내리게 하는 에너지가 가득 차오른다.”

“사진을 보자마자 마음에 파문이 일었다. 영혼의 순례길을 도는 듯 숙연해진다.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빌며, 어서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한다.”

“세상에는 가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만큼 어떤 가치에 일생을 바치는 순수한 이들이 있어왔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게 태어나 그 막중한 임무를 띠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기에, 그래도 세상의 균형이 유지되어 온 게 아닐까?”

“하나하나의 사진이 한 편의 시이다. 높아지기보다 깊어지는, 올리브나무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모두가 이번 생은 망했다, 희망이 없다, 온 세상이 캄캄하다며 뉘그러만 하고 있을 때 박노해 작가님은 소리 없이 글과 사진으로 빛을 가져다주고 계셨네요. 희망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사진이 아름다울수록 깊은 슬픔이 전해집니다.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고, 살아내야 한다고, 천 년을 사는 올리브나무처럼 끈끌하게 우리는!”

## <자이투나 나눔문화학교> 친구들에게 이우중학교 학생들이 쓴 편지

푸르른 5월, <올리브나무 아래> 사진전에 이우중학교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팔레스타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었는데, 사진전 도슨트로 평화교육을 진행한 후, 나눔문화가 운영하는 팔레스타인 난민촌의 <자이투나 나눔문화학교> 친구들에게 직접 손편지를 썼습니다. 학생들은 용돈을 모은 후원금도 전해주었는데, 아이들의 맑은 마음이 담긴 편지 내용을 나눕니다.



“뉴스에서 어렵게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박노해 시인의 전시회를 보면서 너희의 삶을 알게 되었어. 나는 전쟁이 일어나면 다 우울해하고 슬퍼할 줄 알았는데, 곳곳에 피어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동안의 나를 반성하게 됐어. 위로와 사랑, 희망과 평안을 주는 올리브나무 같은 사람이 되길 응원할게. 언젠가 우리 함께 꼭 만나자!” -차수린님

“어려운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너희가 존경스러워. ‘자이투나’라는 학교 이름처럼 굳건한 올리브나무 같은 사람이 되길. 그리고 꼭 고향으로 돌아가길 바랄게.” -남기룡님

“14살이라는 나와 비슷한 나이에 전쟁을 겪고 있는데도 열심히 살아가는 너희의 모습을 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 얼른 이 전쟁이 끝나서 너희의 땅을 되찾으면 좋겠어. 우리도 땅을 빼앗겼다가 다시 돌려받은 나라이기도 해. 그래서 더욱 공감하게 돼. 희망을 잃지 마!” -ian님

## <올리브나무 아래> 사진전을 찾아온 지구마을 벗들

### “팔레스타인의 아픔을 전해주고 고맙습니다” 달리아님

“팔레스타인의 올리브나무 사진을 한국에서 보게 되다니!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왔지만, 제 어머니는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할아버지는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위해 싸우셨고요. 「천 년의 시작은 이렇게」 작품 속 어린 올리브나무들을 보며,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도 새로운 시작이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을 느낍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준 사람만이 담아낼 수 있는 사진과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 전시를 위해 애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한국에 감동의 전시가 있다고 방송했어요” 입티삼님

“저는 모로코인이자 첫 아랍계 여성 KPop 가수인 김미소(한국명)입니다. 팔레스타인 친구들이 많아 스스로를 ‘팔레스타인의 딸’이라고 여기는데요. 친구 소개로 찾아온 <올리브나무 아래> 전시를 보며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매우 행복했고, 매우 슬펐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KimMiso)은 아랍·유럽·아시아 등 100만 명 넘게 보고 있는데, 팬들에게 한국에 이런 놀라운 감동의 전시가 있다고 알려줬어요.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바라는 곳이 있다는 것에 다들 기뻐하며 고마워했습니다.”

“있잖아, 난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몰랐어. 아주 무심했어. 어쩌면 너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남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오늘 너에게 편지를 쓰면서 연결고리가 생겼어. 누군가와 삶이 연결된다는 건 대단한 일이잖아. 그건 네가 혼자 할 일이 절대 없을 거라는 거야. 넌 기억될 거라는 거야. ‘자이투나’라는 학교 이름은 올리브나무와 희망을 상징한다며? 그럼 그곳에서 배우는 넌 올리브 씨앗, 새로운 희망인 거잖아. 너의 삶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어.” -배주은님

“나와 너,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올리브나무와 너희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바라.” -양채정님

“나는 대한민국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대해 배우고 있어. 그곳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게 됐지. 언제 어디서나 고통과 힘듦과 연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그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게!” -김현준님

“나는 너와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어. 이 편지를 쓰며 멈춰서려 했어.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라서. 그래도 감히 희망 가득한 말을 해주고 싶어. 나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동지도 틀고 먹을 것도 나누고 자유롭게 날 수 있으면 해. 마치 새 같이 말이야. 너희도 자유롭게 나는 아름다운 새가 될 거야.” -윤혜준님

①②③박노해 사진전 <올리브나무 아래>展 ④이현지 나눔문화연구원의 도슨트로 평화교육을 받는 이우중학교 학생들 ⑤⑥⑦팔레스타인 난민촌 <자이투나 나눔문화학교> 친구들에게 편지를 쓴 이우중학교 학생들.

**지구마을 벗들**  
BENEATH THE OLIVE TREE

기간 2024.8.25까지  
오전 11시-22시(월휴무)  
참소 라카페 갤러리  
문의 02-379-1975  
\*무료 관람

나눔문화 추천명작 26. 영화 <네트워크>

# “너무 화가 나서



TV에서 진실을 찾던 시대의 예언적 작품 정치 신인이었던 존 F. 케네디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1등 공신은 미국 최초 ‘대선 후보 TV 토론’이었다. “TV에서 모든 진실을 찾는다”라고 했던 TV 부흥기였다. 그러나 거장 시드니 루멧 감독과 오스카 최다 각본상을 받은 패디 차에 프스키는 시대를 앞선 문제의식으로 다가올 현실을 예언하듯 <네트워크>를 완성했다. 시청률 지상주의와 자본의 하수인이 된 방송, 선동에 속는 대중의 모습, 그 모든 것을 통제하는 세력이 누구인지까지. 이 영화는 미국영화연구소가 선정한 ‘미국의 가장 위대한 영화 100선’, ‘미국 도서관이 영구 보존하는 영화’로 선정되었다.

## 위선에 찬 세상, 표출된 대중의 분노

주인공 하워드 빌은 UBS 뉴스의 간판 앵커지만 시청률은 추락하고, 보도국은 적자에 허덕인다. 해고 통보를 받은 그는 고별방송에서 자살을 예고한다. 시청률은 치솟고 일간지 1면을 장식하며 빌은 스타가 된다. 이에 새롭게 편성된 그의 뉴스쇼를 매일 6천만 명이 보며 환호하고, 시청자들은 그의 주장대로 백악관에 항의 전보를치고, 집집마다 창문을 열고 고함을 지른다. “I’m as mad as hell, and I’m not going to take this anymore!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이 대사는 아주 유명해져서 현재 배우들의 오디션에서, 시위나 캠페인에 자주 쓰이는 관용구가 되었다. 1970년대 미국인들은 영화 속 대중처럼 어디론가 분노를 표출할 곳이 필요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의 침략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가치관이 붕괴되고, 오일쇼크와 물가폭

등, 워터게이트 사건 등으로 사회에 활력도 희망도 없었다. <네트워크>에서 시대의 모순을 폭로하던 빌은 “성난 예언자”, “위선이 가득한 세상의 구세주 같은 인물”로 신격화된다. 그때는 몰랐다. 자신이 시청률이란 명분으로 불행한 최후를 맞는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 “인생은 대본이 아니라 현실이야”

대중을 더 적극적으로 선동할 인물로 다이나가 등장한다. 배역을 맡아 신들린듯한 연기와 멋진 자태로 시선을 사로잡은 페이 더너웨이는 이 영화로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그녀는 타락한 좌익 게릴라 그룹을 만나 테러 장면을 생중계하자며 뒤통수를 찌른다. 실제 1960년대 미국 TV에서는 정치인 암살, 학생운동 진압 등을 생방송으로 내보내 시청률을 높였다. 그녀는 전임 보도국장장과 연인이 되는데, 둘의 대화에는 많은 은유가 녹아있다. 그녀가 시청률 때문에 히스테리를 부리자 남자는 말한다. “너 자체가 TV야. 휴머니드야. 넌 고통도 기쁨도 느끼지 못하지. 전쟁, 살인, 죽음은 너에겐 맥주와 똑같아. 나

# 참을 수가 없어!”

는 TV 토크쇼의 남자가 아니라 당신 인생의 일 부라구. 난 여기 존재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당신에겐 감상이겠지만 우리 세대는 그걸 인간 의 품격이라고 해.”라고 말하며 그녀를 떠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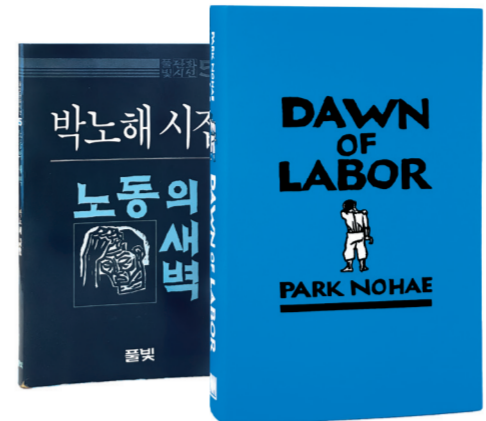
## ‘기업 우주론’으로 지배되는 세계

언론사 회장이 적자 해소를 위해 대기업과 합병을 시도하자, 그들의 의도를 방송에서 폭로하며 매각을 반대하자고 주장한 빌은 결국 회장에게 불려간다. 영화의 압권은 바로 이 장면부터 시작되는데 자본가의 ‘기업 우주론’이 소름 돋게 펼쳐진다. “TV에 대고 미국이 어떻게 민주주의가 어떻게를 떠들어대? 미국도 민주주의도 존재하지 않아. IBM, AT&T, 듀폰, 다우, 엑슨 같은 기업들만 존재할 뿐이야. 이 세계를 지배하는 건 바로 국제통화제도야. 석유를 판 돈, 무력으로 벌어들인 돈 말야. 세계는 비즈니스의 세계라고! 그 이야기를 해줄 사람으로 난 당신을 선택했어. 왜냐고? TV에 출연하니까, 이 멍청아!” 국경 없는 자본과 기업, 그들이 장악한 미디어의 문제를 날카롭게 그려낸 영화 <네트워크>. 나도 모르게 빼앗기고 있는 내 삶의 결정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반세기가 지났지만 권력의 지배 구조는 더 간교하고 강력해졌을 뿐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힘을 쥔 소수가 그들만의 네트워크로 결속해 민중을 흘려놓고 고립시키려 할수록, 우리 또한 선의 네트워크로 모이고 나누며 나아가는 것이 희망이지 않을까. 일상에 스며든 악에 대한 감각을 놓치지 말자고 말하는 영화 <네트워크>를 추천한다.

글 | 임소희 나눔문화이사장, 도서출판 <느린걸음> 대표



① 영화 <네트워크> 포스터. ② “세계를 지배하는 건 국제통화제도야. 그게 오늘날 자연의 법칙이지. 너는 자연의 법칙을 거슬렀어. 그러니 대가를 치뤄야지.” ‘기업 우주론’을 설파하는 언론사 회장. ③ 시청률 지상주의자 다이나나. ④ “여러분, TV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어떤 헛소리도 지킬거예요. TV는 환상을 제조합니다. TV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집단광기입니다.” ‘앵커 빌의 절규. ⑤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네트워크> 대사로 피켓을 만들어 시위 중인 런던 시민.



# “이토록 강력한 시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 Brother Anthony of Taize 서강대 명예교수

한국 시 번역의 독보적 대가 앤서니 수사(82). 영국에서 태어나 옥스퍼드대학에서 중세 시문학을 전공, 1969년 프랑스 떼제 공동체 수사가 되었다.故김수환 추기경의 초청으로 1980년 한국으로와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구상, 천상봉, 김지하, 정호승 등의 작품 80여 권을 번역했다. 그 공로로 한국정 부로부터 옥관문화훈장(2008)을, 영국 왕실로부터 대영제국훈장(2015)을 받았다. ‘작은 순례자’라는 뜻의 한국 이름 안산재로 귀화했다. 박노해 시인의 모든 책을 번역해오고 있다.



## 『노동의 새벽』은 어떤 계기로 번역하게 되었나요?

박노해 시인의 저서 중 제일 먼저 『노동의 새벽』을 해외에 알리고 싶었어요. 2018년에 이 시집의 번역을 시작하면서 이토록 강력한 시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집을 펼치자, 80년대 한국의 공기

# “세계인에게 새로운 감동을 줄 것입니다”

## Harrison Kim 하와이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해리스 김(48)은 하와이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이자 하와이대 출판부 편집위원이다. 하와이대 출판부는 가장 권 위 있는 아시아-태평양 연구 출판사 중 하나로, 50년 이상 한국학 관련 책을 발간해왔다. 해리스 김 교수는 아홉 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대학에서 북한 노동사를 연구했다. 앤서니 수사와 『노동의 새벽』을 공동 번역하며 영문판 출간을 총괄했다.



## 교수님은 『노동의 새벽』을 언제 어떻게 읽게 되었나요?

20년 전 대학원에서 한국 노동사와 사회주의를 연구하다가 『노동의 새벽』을 처음 접했습니다.

# DAWN OF LABOR

## 『노동의 새벽』 40주년 영문판 발간, 번역가 인터뷰

가 되살아났어요. 박노해는 단지 시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노동운동을 하다 감옥에 갇혔고, 다시 세상에 나와서는 분쟁지역 사람들의 삶을 기록해왔죠. 시인의 생애는 작품을 더 빛나게 하고, 세계인들에게도 영감과 희망을 줄 것입니다.

## 『노동의 새벽』을 번역하며 가장 신성한 부분은요?

‘목소리’요. 시인이 전하고 싶어 했던 노동자들의 목소리, 시대의 목소리요. 그리고 한국말의 고유함과 시대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 40년이 지난 지금 『노동의 새벽』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저마다의 새로운 ‘새벽’을 아직 기다리고 있잖아요. 새벽은 희망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미국 뉴욕에서 『Dawn of Labor』를 읽고 있는 청년들.

## 『노동의 새벽』영역 출간을 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요?

2021년에 앤서니 수사께서 번역한 시를 보자마자 마음을 먹었죠. 3년간 출간을 준비하면서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동의 새벽』 영문판 발간은 세계문학사와 노동운동사에 위대한 사건이자 세계인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겁니다.

## 『Dawn of Labor』를 많은 세계인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아마존 등 온라인에서 5월부터 판매가 시작되었어요. 중요하게는 미국 내 2천여 곳의 도서관에 『Dawn of Labor』가 들어가고, 20여 개 대학의 한국학과에서 강의 교재로도 쓰일 것입니다. 북리뷰와 문학 웹진들에 서평 기고도 준비 중입니다. 『Dawn of Labor』에 담긴 인류 보편의 가치가 국경을 넘어 전달되도록 외국의 지인들에게 출간 소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의 새벽』시집에서 가장 인상적인 시가 있다면요? 제일 좋아하는 시는 「하늘」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어 여러 번 읽었어요.

## 외국에서 『노동의 새벽』이 어떻게 읽히기를 바라나요?

영미권에 비해 한국은 시의 힘이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시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노동의 새벽』이 외국의 한국학과 교수들에게도 관심이 높을 텐데, 강의 교재로도 널리 읽히기를 바랍니다.

## 시인의 다른 책 중, 번역 출간되기를 바라는 책은요?

『눈물꽃 소년』과 『너의 하늘을 보아』를 생각하고 있어요. 『눈물꽃 소년』은 60년대 한국의 순수한 정서가 잘 담겨 있고, 『너의 하늘을 보아』는 시인의 최근 생각이 담겨 있어 힘이 있어요.

## 『노동의 새벽』영역 출간을 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요?

2021년에 앤서니 수사께서 번역한 시를 보자마자 마음을 먹었죠. 3년간 출간을 준비하면서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동의 새벽』 영문판 발간은 세계문학사와 노동운동사에 위대한 사건이자 세계인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겁니다.

## 『Dawn of Labor』를 많은 세계인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아마존 등 온라인에서 5월부터 판매가 시작되었어요. 중요하게는 미국 내 2천여 곳의 도서관에 『Dawn of Labor』가 들어가고, 20여 개 대학의 한국학과에서 강의 교재로도 쓰일 것입니다. 북리뷰와 문학 웹진들에 서평 기고도 준비 중입니다. 『Dawn of Labor』에 담긴 인류 보편의 가치가 국경을 넘어 전달되도록 외국의 지인들에게 출간 소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리 농업의 현실, 농부 회원님들의 이야기

지난 봄호 나눔문화 소식지에서는 전 세계적인 농민시위와 농업 및 식량위기에 대한 특집을 다뤘습니다. “우리시대의 근본 문제를 짚어볼 수 있었다”는 후기가 많았는데요. 나눔문화 농부 회원님들의 현장 목소리를 전합니다.



### “삶의 근간인 대지를 지키는 농부의 소임을 위해”

방춘배님 두물머리농부  
前팔당생명실림 사무국장  
나눔문화 12년 회원



세계 농민 시위를 보며 우리 농업도 걱정이 됐습니다. 세계 어느 농민들처럼 한국 농민의 삶도 각자 도생에 처해있죠. 농민의 전체 소득이 100이라면 농사로 번 소득은 30 정도의 수준입니다. 막일을 나가든 알바를 뛰든 다른 일당을 벌어야 생계가 유지되는 거죠. 지금 한국에는 전업농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 농가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소비자는 농산물이 비싸다고 하는데, 농민들은 제값을 못 받아 울상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정해지는 유통 구조에 문제가 많아요. 물류 동선만 봐도 엄청나게 비효율적이예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서울 가락시장에 갔다가 다시 지역으로 돌아와 소비되는 식이죠. 요즘 탄소 배출 감축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농업 분야에서 탄소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이 수입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 직거래가 늘면 건강한 먹을거리가 늘어날 텐데요

한국은 워낙 대형마트 의존도가 높아서 직거래를 해보려 해도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1차 농산물 자체를 많이 먹지 않아요. 밀키트 소비가 급증했는데, 그건 가공식품이거든요. 생활협동조합들도 매출의 90%가 가공품과 공산품이라고 해요. 소비 경향에 공급을 맞추게 되니까, 농민들의 건강한 수확물은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농산물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연결되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공식품 위주의 음식문화가 농업을 산업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을 더 강화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정부의 농업 지원 정책은 농민에게 도움이 되나요? 농민의 90%가 소농인데 지원의 중심은 대농에게 맞춰져 있어요. 실제 예산은 스마트팜, 퇴비업체 등 시설 및 기술 업체에 책정되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농업 지원에 대한 방향은 여야가 똑같아요. 고투입, 고소득 즉 투입 대비 산출을 내놓으라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소농은 정부 기준에 부합하기가 어려워요.

####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요?

좋은 뜻으로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은데, 인증 제도가 점점 더 농민을 옥죄는 수단이 되는 느낌이에요. 내가 직접 톱밥을 부숙시켜 만든 퇴비를 쓰고 싶어도 톱밥이 나온 나무가 어디서 자랐는지, 누가 베었는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고 기존의 인증받은 퇴비만 사서 써야 하는 식이죠. 친환경 농업은 단순히 농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농지를 건강하게 가꾸고 주변 환경을 지키는 농사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친환경 인증 제도가 오히려 건강한 농사를 가로막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 농부로서 정부와 시민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농업’과 ‘농사’를 달리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농업이 먹을 것을 생산하는 산업이라면, 농사는 우리 땅의 토대이자 삶의 근간인 농지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사짓는 농부의 가장 큰 소임이고요. 앞으로 누가 농사짓겠냐고 다들 걱정이 많잖아요. 농사라는 게 정말 누가 시켜서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래도 고된 만큼 보람이 커요. 제가 만난 농부들 대부분은 농사 그 자체를 좋아해요. 땅과 함께 작물을 기른다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옥상 텃밭, 베란다 텃밭, 캠프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이 땅에 대한 감수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귀농을 고려하는 청년들도 아직 존재하고 있지요. 사람과 농지의 연결은 결코 떼어낼 수 없으니, 우리 농사도 새로운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농사는 불멸이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 “수확량 감소, 생산비 상승, 유통의 어려움 속에서”

김숙미님 과산사과농부나눔문화5년 회원



지난해 사과 농사가 어려웠던 점이 재작년 겨울에 눈이 안 와서 애가 났고, 여름엔 고온다습한 기후로 병충해가 정말 많았어요. 수확량은 예년의 10%밖에 안 됐는데, 연료비·인건비·농자재 등 모든 물가가 급증했죠. 그런데도 대부분의 농민들은 1년 농사 지어서 농협 등에 ‘위탁 판매’를 하니까 울면서 싼값에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사과 값이 너무 올라 국민적 불안과 불만이 컸는데, 실은 비싼 소비자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는 쪽은 따로 있는 구조예요. 저는 직거래를 하니까 가격 책정도 직접하고 오랜 고객들이 있어서 그나마 상황이 나아요. 하지만 나이가 많은 농부님들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처를 만들기도 어렵고 기존의 시스템에 매인 채 그저 버티고 계시는 거죠. 그래도 지난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서 올해는 농사가 좀 낫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보고 있어요.

### “힘들여 길러낸 농산물이 제값을 받는 정책을”

신재현님 여주쌀농부나눔문화10년 회원



독립국가의 기본은 식량주권이잖아요. 그래서 농촌 소멸이 문제이고요. 힘들여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다면, 농민이 떠날 이유가 없어요. 그해 생산 조건에 따라 특정 농산물이 비쌀 수도 있는데, 정부는 물가를 핑계로 무조건 수입부터 합니다. 길게 보면 우리 농업을 위협하는 일인데도요. 윤석열 정부는 양곡관리법 거부 등 농가의 소득 보전과 안전망 보호에도 너무 무심해요. 농업은 농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생존 근거임을 알아야 합니다.



14년 회원 인터뷰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 김현정 법인사업국장, 김선영 공동체지원팀장

## “도시에서 농부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농업·농촌·농민들이 더욱 위기에 처하면서 결성된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이하 우리농). 김현정 법인사업국장(30년 차)과 김선영 공동체지원팀장(18년 차)은 2010년 4대강 지키기 현장에서 나눔문화를 알게 되어 가입한 14년 회원입니다. “농부는 밭에서, 우리농 활동가는 도시에서 생명농업을 지켜가는 동반자”라고 말하는 두분을 명동성당 옆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인터뷰 | 이현지 회원성김팀장

####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의 활동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농 운동은 1994년 한국 천주교 주교단에서 농민들의 처지에 공감하여 우리 농민과 농촌 및 농업을 살리는 일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면서 각 교구 별로 시작되었어요. 30년째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 직매장도 열고 시민강좌도 진행하고요. 자본의 가치보다 생명의 가치를 우선하자는 것, 밥상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꾸준히 얘기하고 있어요.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농업의 가치와 어려움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은 농부들에게 빛을 지고 있잖아요. 약 한번 치면 쉬울 텐데 환경과 자신의 철학을 지키기 위해 원칙을 고수하는 농민들이 많아요. 농민은 생명농업을, 도시인들은 생태적인 삶의 방식을 지켜갈 때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보람을 느끼거나 힘든 점은요?

우리농 사무실에는 농민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기도문에 “마음의 고향 농촌”이란 표현이 있는데요. 신앙인으로서 더불어 살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 꿈이 시골에서 집 짓고 농사지으며 사는 것이었는데,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직접 살아내고 있는 농민들을 만나고 연결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출근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죠. 반면에 이 운동은 더디고 어려워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뭘 하나 선택할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게 많잖아요. 집에 가면 밥 하기 싫을 때 있고, 편리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이 같이 사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해야 하는 거죠. 세

상 모든 것이 자본 논리에 맞춰지고 먹을거리, 종자, 생명공학 시장도 소수의 대기업이 좌지우지하고 있죠. 농민부터 소비자까지 종속되어 있고요.

#### 코로나 이후로는 더 많은 변화가 느껴졌을 텐데요

우리농 운동은 대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직접 밥해 먹는 것을 출발선으로 봅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공동체 문화가 더 무너지고 특히 밥을 함께 나눠 먹는 일 자체가 줄어들었죠. 혼밥(혼자 먹는 밥)하기도 편해졌고, 배달망은 더 촘촘해졌죠. 밥상에서 농민의 얼굴을 기억하는 관계가 되길 바라는데 점점 멀어지는 거죠. 우리농 매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요청 사항이 ‘소포장으로, 간단하게, 빠르게’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농민들이 더 쇠약해진 것도 눈에 띄는 일인데, 힘들게 생명농업으로 일궈온 땅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 좀 더디더라도 더불어 한 걸음이라도 다같이 우리농촌살리기 운동

#### 도시와 농촌의 바람직한 협력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송아지 보내기 운동’을 20년간 이어왔어요. 도시 성당에서 송아지 1마리 값 350만 원을 농가에 보내면 몇 마리씩 소규모로 맡아 길러냅니다. 이소는 수입 GMO 사료 대신 농사에서 나온 부산물을 먹고 자라요. 이 소가 싼 톱으로 퇴비로 만들고, 그 퇴비를 이용해 농산물을 키우죠. 송아지는 4개월이 지난 후에 도축해서 안전한 소고기로 도시 성당에서 나누어지고, 퇴비로 기른 농산물은 연중 직거래로 나누어져요. 도시와 농촌이

협력해서 땅과 밥상을 살리는 것이지요.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 농민들이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기에 시작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를 갖춘 농가만 소를 키우게 해서 어려움이 많아요. 구제역 예방이 정책변경의 이유였는데 전염병은 집단축사에서 발병하는 편이죠. 지역단위로 축사를 지어 사업을 이어가고 있어요.

#### 앞으로 우리농 운동을 어떻게 해나가고 싶은가요?

(김현정님) 우리농 운동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해야 하는 공동체운동이기 때문에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되어야 해요. 각 성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농 교류와 생명 농산물 직거래 나눔 활동이 확산되도록 하고 싶어요. (김선영님) 어린 시절, 시골 할머니댁에서 지냈던 기억이 지금도 저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제가 그랬듯이 미래의 아이들도 ‘농촌’하면 행복한 기억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생명이 움트는 농촌에서 생태적 감수성을 느껴보는 활동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 14년간 나눔문화와 함께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김선영님) 2010년 4대강 지키기 두물머리 미사에서 나눔문화 연구원들을 만났어요. 나보다 어린 청년들이 앞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왜 더 용기를 내지 못할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더 놀랐던 것은 정부 지원과 재벌 후원을 받지 않는 나눔문화의 원칙이었어요. 어느 현장에서나 나눔문화 피켓이 보였고, 반갑고 고마웠어요. 나눔문화의 좋은 기운을 더 많은 분이 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정님) 후원한다기보다 좋은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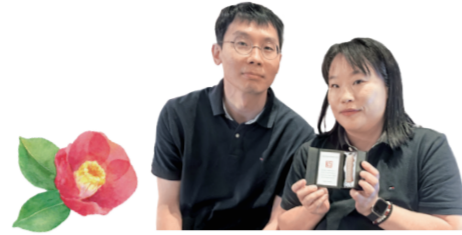
①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 창립미사. 1994.10. ② 우리농. ③ 4대강 지키기 두물머리 미사 현장에서 만난 김선영님. 2010.03. ④ 나눔문화

제주도 나눔문화 회원님 만남

2024년 초부터 나눔문화 연구원들은 전국 지역에 계신 회원님들을 찾아뵙고 현장의 생생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6월 초에는 90여 분의 회원님이 있는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가장 멀지만 깊은 애정으로 나눔문화와 함께 하는 제주 회원님들과의 만남을 전합니다. 인터뷰 이현지 회원님감정

# “4.3 시민 지킴이로 제주를 지켜갑니다”

신호선님 제주시 사회복지직, 김윤슬님 <윤슬 국어> 원장, 나눔문화 10년 회원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을 찾아 10년 전, 제주도에서 “나만의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김윤슬, 신호선님 부부. 김윤슬님은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선생님이요, 신호선님은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제주도 4.3 시민 지킴이단, 제주바다살리기 활동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어서 제주도로 왔나요?

서울에서 일하며 삶에 대한 고민이 깊을 때였어요. ‘결혼식을 꼭 해야 하고, 아이를 꼭 가져야 하나?’라는 고민과 압박감도 컸고요. 그래서 캐리어 2개, 고양이 3마리와 함께 제주로 내려왔는데 아름다운 자연 속에 머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해방된 느낌이었어요. 명품백을 들지 않아도, 소형차를 타고 다녀도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어서 좋아요.

10년 전, 박노해 사진전 <다른 길>에서 회원이 되었죠?

박노해 시집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를 감명 깊게 읽어서 <다른 길> 사진전 ‘시인과의 대화’에 찾아갔어요. 전시장을 꼭 채운 사람들 사이로 손을 번쩍 들고 “진짜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는데, 주변에서는 ‘왜 그렇게 다르게 살려고 하는

냐’라고 반대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더니, 시인이 “마음이 부르는 길을 걸어 가면 좋겠다. 삶의 주체는 바로 나이기에, 내 삶은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야 한다. 용기 있게 깨치고 걸어라”라고 답해주었어요. 어른들 중 유일하게 시인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봐 주었죠. ‘아! 다르게 살아도 되는구나’ 용기를 냈고 제주로 왔어요.

제주 4.3 시민 지킴이단에서 어떤 활동을 하나요?

유적지 안내문을 새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문구를 바른 관점으로 수정하는 활동 등을 해요. “잃어버린 마을”이란 표기를 “빼앗긴 마을”로 바꾸는 거죠. ‘진압 명령을 누가 처음 했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언론에 기고도 했어요. 당시 가해자들이 전두환 쿠데타 때 오직을 차지했고 그 자손들은 여전히 제주에 살고 있었죠. 결국 언론에 실리진 못했어요.

4.3 항쟁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가 경찰대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는데, 그 집 할머니가 “4.3 유가족으로 인터뷰하는 바람에 떨어

진 것 아니냐?”라며 괴로워했어요. 그런 불안감이 남아있는 거죠. 매년 봄꽃 축제를 여는데, 꽃이 늦게 피어도 축제를 미룰 수가 없어요. 4.3항쟁의 많은 희생자들 제삿날과 축제가 겹치면 안 되니까요.

어떤 계기로 우리 역사에 관심이 많아진 건가요?

할머니가 일제 때 겪은 일을 말해주고는 했는데, 눈 앞에서 아버지가 일본 순사의 칼에 찔려 돌아가셨대요. 시할아버지께서 “일제 때 징용 다녀왔다”라고 해서 조사해 보니, 당시 삼척에서 3년간 징용된 사람만 3천 명이 넘지만 명단도 부정확했어요. 제가 국문학을 공부한 이유도 일제강점기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책을 써서 세계로 알리고 싶어서였어요.

10년간 나눔문화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구원들이 밝은 목소리로 안부 전화를 주잖아요. 여러 곳에 후원하지만 처음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가까이 있다고 느껴져요. 후원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깔끔하게 공개하는 것도 믿음이 갔어요. 제주도 있는 좋은 분들과 나눔문화를 소개할게요.

# “제주의 젊은 해녀 이유정이우다~”

이유정님 제주 해녀, <해녀고기> 대표

이호마을의 최연소 해녀 이유정님. 해산물의 라이브커머스 판매부터 어촌계 활성화까지,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요. 아침엔 해녀 삼촌들과 물질, 오후엔 대학에서 미술공부를, 저녁엔 식당을 운영하는 새내기 나눔문화 회원, 이유정님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5살에 해녀로 일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서울에서 안정된 직장을 다녔지만 공허했어요. 나만의 삶을 살고 싶어 고향 제주로 돌아왔죠. 하루는 물질하고 나온 해녀 삼촌이 빛나 보이는 거예요. 당당하고 아름다운 제주 해녀의 명맥을 이어가고자 해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5년 차 해녀로 이호마을 17명 해녀 중 막내랍니다. 제 바로 위 해녀는 69세이고요. 해녀 삼촌들에게 물질 뿐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제주 바다의 현실에 대해 느낀 점이 많다고요

물질을 해보니 바다에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폐그물에 오리발이 걸려 위험천만한 적도 있었죠. 해양 생태계 변화도 심각한데요, 어획량도 줄었고 만타가오리, 흑등고래처럼 제주 바다에서 볼 수 없던 어종이 나타나고 있어요.

4.3 시민 지킴이단 활동도 같이 하고 있다고요?

제주 전체가 4.3의 피해 지역이에요. 말조심하라는 어른들을 보며 자랐죠. 4.3 특별법이 제정되고 교과서에 실렸다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피해 유가족도 아는데 왜 나서느냐?”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지만, 해녀이자 제주인으로서 더 공부하고 진실을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첫 만남에 나눔문화 회원 가입을 ^^ 고맙습니다

4.3 지킴이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김윤슬 원장님께 박노해 시집 『너의 하늘을 보아』를 선물받고, 나눔문화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들었어요. 진짜 선물 같은 하루네요. 박노해 시인이 “과거를 팔아 오늘을 살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저는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 서울 라카페 갤러리에서 만나요.

#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집을 열었어요”

전인수님 공립 <제주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원장, 나눔문화 2년 회원



교실을 나서면 숲을 만날 수 있고 장애, 비장애 아동이 어울려 생활하는 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전인수님. <제주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협의회>를 세우는 등 30여 년간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과 부모 교육에 힘써왔습니다.

직접 어린이집을 열게 된 계기가 있다고요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식단을 바꾸고 싶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서, 25년 전에 친환경 급식 어린이집을 열었어요. 다른 곳에서 적응을 못 하던 발달장애아들이 우리 어린이집에 곧잘 적응을 했어요. 부모들의 요청에 확장 이전하여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아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됐어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 온 아이의 변화가 있다면요?

잘 걷지 못하는 아이는 또래 친구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나도 걷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지거든요. 뇌병변 장애를 가진 아이가 우리 어린이집을 다닌 지 1년 만에 걸었어요. 장애 때문에 아이가 놀림을 받을까봐 걱정하던 어떤 엄마는 친구들이 이름을 부르며 반겨주는 것을 보면서 울기도 했어요

발달장애 부모들을 위한 활동으로 이어가게 되었군요

발달장애 부모들의 자조모임 <제주아이 특별한 아이> 결성을 도왔어요. 같이 교육감, 도지사 등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을 했죠. 그 성과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 내 학교에 특수학급이 10개 이상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어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바뀌어야 할 텐데요

장애는 도움이 필요한 상태일 뿐이죠. 장애인들이 지하철 점거 농성을 했을 때, “당신들 때문에 내 출근이 늦어졌다”라는 댓글을 봤어요. 장애인들을 고려한 이동 수단이 잘 확보돼야 다 같이 제때 출근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나눔문화 회원이 된 계기와 하고 싶은 말씀은요?

박노해 사진전 <라 광야>를 통해 나눔문화를 알게 되었어요. 가치 있는 삶에 대한 물음을 안고, 제 삶의 현장에서 부딪힌 문제부터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어요. 진심을 다하면 언젠가는 바뀐다는 것을 믿으며, 나눔문화 회원으로 함께 하고 싶습니다.

# “아이들 가슴에 씨앗을 뿌리는 교사로, 좋은 동행자로 함께 하고 싶어요”

강희전님 중학교 국어 교사, 나눔문화 10년 회원



교사의 꿈을 심어준 중학교 은사, 전은영 회원과 함께 나눔문화를 찾아왔던 강희전님. 20대 새내기 교사 시절, 나눔문화 회원이 되었는데 이제 15년 차 교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나눔문화 후원 10년을 기념하며 회비증액을 한 강희전님과 대화 전합니다.

나눔문화와의 10년 인연,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박노해 시집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를 읽고 강렬한 충격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을 때, 중학교 시절 은사 전은영 선생님이 “내가 후원하는 곳이야”라며 나눔문화를 소개해 주었어요. 인연의 신비랄까요? 회원이 된 첫째, 나눔문화 연말 후원모임에 참석하려고 비행기 타고 서울에 갔어요.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회원님들이 떠오르네요. 첫 만남에도 마음을 열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어요.

나눔문화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요?

‘빨강피켓’이요! 2016년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나눔문화가 제작한 빨강피켓을 들었을 때, 나눔문화의 존재감이 크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계절마다 보내주는 소식지요. 교사이자 엄마로 바쁘지만, 나눔문화 소식지는 챙겨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진실’에 대한 글은 제 마음속의 막연한 공포감을 많이 없애 주었어요. 어떤 문제든지 잘 모르면 두렵잖아요. 백신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는데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돌아보니 나눔문화는 제게 새로운 세계를 알려주는 곳이었네요.

이 되었답니다. 돌아보니 나눔문화는 제게 새로운 세계를 알려주는 곳이었네요.

제자들에게 어떤 교사가 되어주고 싶은지요?

초임교사 시절에는 내가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좌절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교사는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은사님의 조언을 되새겼어요. 교사가 한 말은 아이들 가슴에 씨앗처럼 심어져 있다. 생의 어떤 순간에 싹을 틔우고 꽃처럼 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만 가르치기보다는 생의 어려운 순간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문학 작품이나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박노해 시인의 시 ‘동행자’를 좋아하는데요. “아무 걱정 말아라 / 좋은 동행자가 함께하면 / 그 어떤 길도 길지 않은 법이니”. 회원님들께 들려주고 싶은 시입니다. 처음 나눔문화에 갔을 때 품었던 생각들이 다시 떠오르네요. 삶이라는 길 위에서 동행해 주는 회원님들을 떠올리면 힘이 납니다. 10년 회원이 되었으니 회비도 증액합니다. 나눔문화, 사랑합니다.

제주도 회원님들과 함께 한 순간



나눔문화 회원님들, 언제나 보고 싶습니다. 전국 곳곳에 찾아갈게요!  
이상훈, 이현지 나눔문화 연구원



① 라카페 갤러리를 함께 방문했던 첫날, 전은영님과 강희전님. 2014. ② 제주도의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강희전님과 이현지 연구원. 2024. ③ 본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해녀고기>에서 나눔문화 회원 가입서를 작성하는 이유정님. 2024. © 나눔문화

# 샘물처럼 맑고 산바람처럼 시원한

# 가입, 증액, 특별후원 회원님 고맙습니다

##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놓는 용기

존경하는 역사 강사 최태성님과 라 카페 갤러리에 갔다가 나눔문화를 알게 됐어요. <최태성 2TV> 유튜브 채널에서 노동절을 맞아 박노해 시인의 시집 『노동의 새벽』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았는데, 역사적 의미가 더 깊게 와 닿았어요. 독립운동가 이회영 기념관에서 해설 봉사하고 있는데, 다른 이를 위해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용기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눈물꽃 소년』을 보면 박노해 시인도 어릴 때 자신을 믿어준 소녀를 만나 힘을 얻었고, 지금은 세상에 힘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요. 저도 사라져가는 소중한 가치들을 지켜가는 회원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회원가입 권지혜님

## 모아온 여행기금을 팔레스타인 난민촌에

여행이 취소되어 돌려받은 기금을 후원합니다. <올리브나무 아래> 전시를 봤으니, 여행은 다녀온 것이나 다름없지요.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떠올리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이투나 나눔문화학교>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척박한 난민촌에서 18년 넘게 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해요. 자이납 교장과 교사들의 건강과 아이들이 가정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특별후원 이미숙님

##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어 준 책 『다른 길』

라 카페 갤러리의 꽃과 나무들을 낫을 잃고 바라봤어요. 초록초록한 공간의 매력에 빠져 첫 만남에서부터 '나도 여기 회원이 되어야겠다'고 저절로 마음이 열린 것 같아요. 10년 전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저를 일으켜 세워준 두 가지가 있어요. 캘리그라피와 박노해 시인의 책 『다른 길』이에요. 감명 깊은 글을 그림과 캘리그라피로 옮겨 적으며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는데요. 앞으로도 남편이 지어준 '굳세나(good\_sena)'라는 예명대로 세상에 빛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굳세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회원가입 이세나님

## 정부 지원·재벌 후원 안 받는 원칙이 곧 희망

박노해 사진전 <올리브나무 아래>를 보고 시인이 평화 활동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눔문화가 24년 넘게 회원 회비로만 운영되어 온 것이 놀라웠고, 이곳을 지켜온 분들께 감사했어요.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위한 무료 명상 공간을 운영하고 싶은 게 꿈도, 여럿이 뜻을 모으면 가능하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회원가입 전애란님

## 어린이날, 제자들의 이름으로 가입합니다

박노해 사진전 <올리브나무 아래>를 보며 담임을 맡고 있는 <푸른숲 발도르프학교> 아이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우주를 담고 있는 존재라 생각하며 만나고 있어요. 아이들은 늘 세계 사랑을 가르쳐주는데요, 그 배움을 소박하게 실천하고 싶습니다. 마침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기도 하여,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을 떠올리며 그동안 버려왔던 나눔문화 회원가입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회원가입 '푸른숲 발도르프학교 5학년'과 우미자님

## 도서관에서 박노해 시인의 책을 볼 수 있게

박노해 시인의 『눈물꽃 소년』을 읽으며 울고 웃었어요. 순수하면서도 울림이 깊은 메시지가 좋아 독서 동아리에서 함께 읽기로 했습니다. 시인에 대한 관심이 생겨 시집 『나의 하늘을 보아』를 읽고 있는데, 여태 몰랐다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강원도 횡성 지역 도서관에서 박노해 시인의 책을 검색해 보니 전부 비치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누구나 도서관에서 박노해 시인의 책을 접할 수 있기를 바라며 희망도서로 구입 신청하고 나눔문화에 회원으로도 가입했습니다. 회원가입 조진미님

## 매주 오전 원석 소비를 줄이고 후원을 늘려요

박노해 시인의 『눈물꽃 소년』을 읽으며 나는 어떠한 어른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가난하고 어렵지만 곳곳이 살아있던 그 시절과 달리 풍족하게 지내는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았어요. 시인의 할머니처럼 곳곳에 할 때 곳곳할 줄 알고, 지켜야 할 것을 구별해내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더군요. 작은 실천으로 일주일에 한 번, 5천 원의 소비를 참아보기로 했어요.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사게 되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모은 돈은 꼭 필요한 곳에 잘 나누어주는 나눔문화에 보냅니다. 회비증액 조지현님

## 나눔문화가 제겐 '삶의 대학'입니다

김예슬 나눔문화 사무처장이 저와 같은 20대에 쓴 책 『김예슬 선언-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를 읽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고자 4수까지 하면서, 앞서서 뒤처질까 뒤처지면 낙오될까 불안해했던 제가 보이더군요. 그렇게 들었던 대학에서 더 무력한 현실과 나를 마주하면서, 대학 간판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끼는 사이, 자유로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힘과 참된 우정을 잃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웠고 우리 사회가 쓸쓸했습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광활한 별판 앞에서 있는 듯 했고 '이제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어요. 박노해 시인의 글을 찾아 읽었고, 나눔문화 회원으로 가입해 팔레스타인 집회에 참여하면서 진심으로 울고, 라 카페 갤러리에서 일하며 더 활짝 웃었습니다. 나눔문화가 제겐 '삶의 대학'이었어요. 치열하게 걸어오고 있을 새로운 아이들에게도 나눔문화가 가닿기를 바라며, 기쁘게 회비를 증액합니다. 회비증액 김윤찬님

## 가족모두 회원가입 유승학님 | (주)유신모터스 대표이사, 대산대학교 재단 이사장

## “박노해 시인의 글은 저를 깨어있게 합니다”



지난 4월 대구에서 유승학님(나눔문화 6년 회원)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내 전영애님이 회원가입했는데요. 한달 후 서울 라 카페 갤러리에서 두 자녀 재현님과 석현님도 가입해 나누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올해 대산대학교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유승학님은 매력적인 중저음의 목소리로 남성 중창단에서 활동하며 공연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대화 내내 박노해 시인의 글을 인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유승학님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인터뷰 | 이현지 회원심김팀장

가족 모두 나눔문화 회원이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코로나 때 다들 힘들지 않았습니까. 나눔문화도 정기회비가 줄었다니, 우리 가족에게 먼저 회원가입을 권했죠. 아내와 아이들도 선뜻 가입했구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좋은 일이 생기면 조금씩이라도 용돈을 나누게 했어요. 아내는 지난 결혼기념일에 나눔문화에 특별후원을 했었고요.

지인들에게 박노해 시인 책을 선물한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좋은 선물이 없어요^^ 후배가 찾아와 자녀 문제로 고민하면 "부모는 고통의 성직이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딱 맞는 말이네요. 성경에 나오니까?" 관심을 보이거든요. 그럴 때 책을 건네며, "박노해 시인이 한 말이다. 편견 없이 읽어봐라. 가슴이 평하고, 어떻게 살면 되는지 가르쳐 줄 거다"라고 하죠. 그러면 마음이 열립니다. 저도 그렇게 시인의 책을 통해 깨닫고 마음이 열렸으니깐요. 『사람만이 희망이다』에 실린 글 「인दार의 구슬」을 참 좋아하는데요, 세상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으로 불경에 있는 말이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기독교에 갇혀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교회 장로님도 『걷는 독서』를 보고 "꼭 성경 같다"고 하셨다니까요. 나눔문화가 추구하는 생명 평화 나눔은 모든 종교의 공통 주제잖아요.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책

에 감동할 수밖에 없죠. 아름다운 글을 나누는 것만큼 진심을 전하기에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평소 대화할 때도 시인의 글을 자주 인용하나요?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꽃은 달려가지 않는다"라는 글을 읽으며 출근해도, 눈앞에 숫자가 왔다 갔다 하면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퇴근길에 다시 글을 떠올리며 "오늘 잘 살았나?" 돌아보곤 합니다. 『걷는 독서』에서 "지식을 축적하는 '자기 강화'의 독서가 아닌 진리의 불길에 나를 살라내는 '자기 소멸'의 독서가 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신앙도 그렇거든요. 기도 많이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닐수록 자신이 강화되기 쉬워요. 하나님 말씀, 세상의 소리, 어려운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기 소멸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안에 이렇게 시인의 글이 녹아 있어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가 봅니다.

## 응원하고 함께 해주어 고맙습니다

저는 대구 토박이지만 정치, 종교의 틀에 갇히지 않으려고 해요. 시인은 "과거를 팔아 오늘을 살지 않겠다"고 했죠. 민주화 운동으로 사형 구형을 받을 정도로 헌신했지만 권력을 쫓지 않고 분쟁지역에서 평화 활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역시 다르구나' 싶었어요. 책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 속에 진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감리교 신학자 존 웨슬리가 "참된 회개는 네 주머니가 회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죠. 돈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좀 더 감사하고,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는 가족 유석현님 유재현님 유승학님 전영애님



## 특별후원 고맙습니다 “나눌수록 강해지고 나눌수록 커집니다”

“나눔문화가 사용 중인 건물의 월세가 올랐다는 말을 들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처음으로 특별후원했습니다.”

나누는 학교 졸업생 나눔문화 1년 회원 박채원님

“독서모임에서 박노해 시인의 『눈물꽃 소년』을 함께 읽었어요. 소중한 가치와 따스한 인간미를 지켜가는 나눔문화를 응원합니다.”

3년째 참가비를 모아 후원해온 <민들레독서모임>

“아버지 故오종환님을 기리는 마음으로 후원합니다. 차오르는 슬픔은 나누고 다시 곳곳하게 나아갑니다.”

고인을 기리며 나눔문화 3년 회원 오정숙님



회원가입 97분

회비증액 10분

특별후원 35분

2024.03.07-2024.06.06 회원가입 97분 강오순 강현아 고허구자훈 권명심 권산하 권지혜 김경이 김남희 김동연 김동주 김명신 김미 김미숙 김미희 김민지 김성민 김세윤 김영미 김영준 김윤배 김은영 김종강 김진영 김창욱 김태호 김현욱 김형기 문재인 문태은 박강희 박영선 박정수 박태희 배영일 서정아 손용석 송봉길 송재용 신혜림 심민보 안교성 안민자 여인원 유권수 김은미 유민아 유석현 유재현 이경희 이규호 이동만 이명주 이명성 이상열 이세나 이수 이유정 이윤정 이은영 이은희 이재훈 이혜정 이혜진 이홍규 장수란 장은경 장흥훈 전애란 전영애 정문욱 정영화 정윤지 정은환 정혜원 정혜인 정한규 조경숙 조규성 조민정 조수미 조용심 조정래 조정희 조진미 조혜진 최경숙 최성준 최연 최은경 최정희 한성희 허수진 홍영임 황금석 황찬식 황현주 푸른숲발도르프학교 5학년 회비증액 10분 간은지 강희전 김윤찬 김정숙 류부철 영명희 윤미희 전성숙 조지현 남준희 한치호 특별후원 35분 김동겸 남순태 김영나 김윤경 김윤희

명재권 문지숙 · 故문은호 · 故문지연 박채원 서지영 송창의 · 이덕희 오동영 오정숙 · 故오종환 오현미 우용재 윤주욱 이명욱 이미경 · 이준범 이미숙 이세나 이순희 이재철 · 최예리 이혜주 이호숙 레지나 이호순 장은경 장혜진 전영균 정선미 최미화 · 최형석 최은경 최현정 한치호 한현현금미 황지현 차문화공간루 자이투나 나눔문화학교 6분 고제희 김인국 남경순 유자일 이시중 이우학교 2024 평화뱅크 RESTREPO ALONSO SILVANA 의 7분 소책자 장순희님 외 3분 선물을 나눔 건강한 먹을거리를 보내주신 김경석 김정만 방병진 · 이은숙 신주수 양신영 유승학 · 전영애

